

리아호나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려
태어나시다, 16, 44쪽

종파를 초월한 봉사에서
얻은 축복, 26쪽

중독을 극복하려는
청녀의 여정, 5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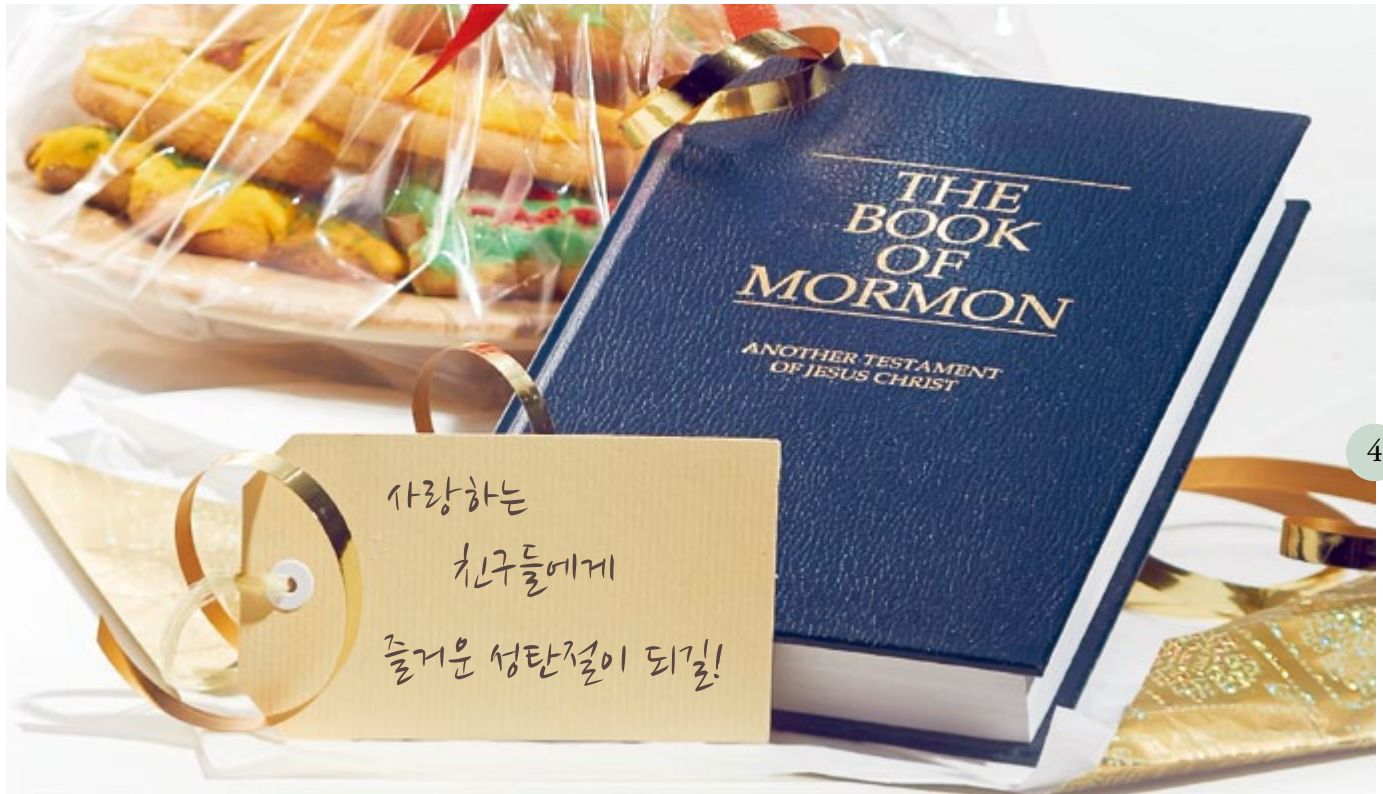
어린이 활동: 예수님에 관한
나만의 책 만들기, 69쪽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 조셉은
하늘을 들어
땅에 내려놓고,
땅을 들어 하늘에
올려놓고 열어서
하나님에 관한
것을 명료하고도
단순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셉의 사명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
이었습니다.”

President Brigham Young
(1801-77), *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John
A. Widtsoe (1954), 458-59.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영원한 가족, 영원한 친구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
독생자

특집기사

- 16 주 믿는 신도여
브루스 디 포터 장로
옛 예언이 성취되어 속박된 자들이
자유를 찾고 인류는 희망을 찾게
되었다.
- 22 색인 작업은 중요합니다
제니퍼 그레이스 존스
그토록 단순한 일이 정말 전 세계의
가족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 26 종교 간 협력을 통해 더 훌륭한
성도가 됩시다
베시 벤덴버그
타 종교인들과 함께 봉사함으로써 더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32 준주스에서 친구로
데이비드 덕슨
고드프리는 교회를 알고 싶지
않았으나 수북이 쌓인 나뭇가지를
보고서 마음이 달라졌다.

34 아프리카—밝은 희망의 대륙
리차드 엠 톰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회복의 기적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교회 본부 기사

- 8 우리의 믿음: 영광 중에 지상으로
돌아오실 주님
- 10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아이들이
성신을 인식하도록 돕는 일
메릴리 브라운 보이엑
- 13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가르치기:
회개
- 14 교회 소식
- 40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시 만날 때까지: 집으로 가는 길
헤더 휘틀 리글리


표지
앞: 세상의 빛, 제이 브라이언트 워드, 뒤: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동들, 아더 에이 덕슨, 안쪽
앞 표지 사진: 일리노이 나무 성전, Scott Jarvie
Photography



44

44 성탄절의 약속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은 구주께 어떤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이발사가
도와줄 거예요

60



- 48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이 경륜의 시대는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시기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영접하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 52 질의응답
“어떻게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 54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길의 끝에서 본다면
브래들리 디 포스터 장로
여러분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입니다.
- 56 중독에서 해방되며: 나의 외설물 극복 과정
익명
청녀인 내가 외설물 문제를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 58 단순한 조수를 넘어서
가정 복음 교육에서 자신을 그저 따라다니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 60 거룩한 곳에 서라
세계 곳곳에서 보내온 사진 속에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거룩한 곳에 서 있는지 볼 수 있다.
- 64 좋아하는 성탄절 노래
시 지 린스트롬
한 자매가 노래를 부르려고 올라왔을 때, 나는 그녀의 노래가 별로일 것이라고 잘못된 예상을 했다.



67

- 66 우리 형은 선교사
케빈 브이
이제 내 방이 생겼다. 형이 그림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반대일 수도.
- 67 특별한 증인: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 68 가정에서 초등회 적용하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을 안다
- 71 우리들 이야기
- 72 예수님을 기다리며
매튜 디 플리튼
아기 예수는 어디에 있을까? 그분 없이는 성탄절을 축하할 수 없었다.
- 74 유적지 탐방: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애니 비어
- 76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 81 선지자 초상화: 조셉 필딩 스미스

2013년 12월호 제50권, 제12호
리아호나 10792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입니다.

제일회장: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이사도 정원하: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욱스, 엠 러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얼 맥,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크레이그 에이 카든

고문: 세인 엘 바운, 브래들리 디 포스터, 크리스토퍼 콜든 이세, 앤서니 디 퍼킨스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와너

가족 및 회원 지원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트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기, 라린 포터 건트

출판 보조: 알리사 켈레노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수잔 배넷, 데이비드 덕스,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튼, 민디 라에 프리드만, 로리 풀러, 게리 에이치 가프, 제니퍼 그레이스 존슨, 마이클 알 모리스, 리처드 엠 롬니, 폴 벤덴버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캇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류, 패이 피 앤드리스, 시 김벌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기네스, 캐리 린 시 해린, 콜린 헝글리, 에릭 피 존슨, 수전 로프그렌, 스콧 웨인 마이, 브래드 테어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부장: 제인 엘 피터스

제작 팀: 콘니 바솔프 브릿지, 줄리 버넷, 브라이언 더블류 지기, 드니스 커비, 지니 제이 낚스, 가일 타데 라퍼타

사건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스티븐 알 크리스텐슨

통권: 제564호, 제50권, 제12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3년 1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경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church.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o@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church.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로 보내 주시거나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m.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론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예스트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자)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3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December 2013 Vol. 50 No. 12. LIAHONA (USPS 311-480) Korean (ISSN 1521-479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7074.12.5)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만한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두 가지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사진 출처: 데이비드 스토크

“아이들이 성신을 인식하도록 돕는 일”, 10쪽: 이 기사를 다시 살펴보고, 성신의 속삭임을 듣는 방법을 자녀들이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청각적, 시각적, 신체적 활동을 계획한다. 성탄절 이야기를 읽고 역할극을 해 볼 수 있다. 구주의 탄생에 관한 찬송가와 초등학교 노래를 배워서 친구와 이웃을 위해 공연할 수 있다. 구주 사진을 함께 보거나, 집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표현한 조각품을 놓아 둔다. 가족 봉사 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 어떤 일을 선택하든, 자녀들이 영을 느낄 때 그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종교 간 협력을 통해 더 훌륭한 성도가 됩시다”, 26쪽: 성탄절에 타 종교인들과 교류할 방법을 찾아본다. 기독교를 믿는 다른 가족과 함께 성탄절 이야기를 읽거나 봉사할 수 있다. 가정의 밤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가족을 초대해서 각자의 믿음과 전통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그 후에 친구들과로부터 어떤 진리를 배우게 되었는지 자녀들과 토론할 수 있다.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 가르침, 10
- 가정 복음 교육, 58
- 가족 역사, 22
- 가족, 10, 66, 67
- 감독, 54
- 개척자, 34, 74
- 경륜의 시대, 48
- 고백, 54
- 공휴, 80
- 도덕성, 56
- 미디어, 56
- 봉사, 26, 32, 58

- 비판, 80
- 선교 사업, 4, 32, 34
- 선지자, 34, 48
- 선택의지, 52
- 성신, 10
- 성약, 44
- 성전 사업, 22
- 성탄절, 4, 16, 40, 41, 43, 44, 64, 72, 76
- 아프리카, 32, 34
- 어린이, 10
- 예수 그리스도, 7, 8, 16, 48, 68

- 예언, 44
- 외설물, 56
- 용서, 54
- 유혹, 52, 56
- 자유, 16
- 장애, 64
- 재림, 8, 48, 68, 72
- 조셉 필딩 스미스, 81
- 초등학교, 71
- 회개, 13, 16, 54, 56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영원한 가족, 영원한 친구

여러분이 사는 곳이 어디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대로 살면서 찾았던 것과 같이 더 큰 행복을 찾는 이들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행복을 표현할 수 없을지 모르나 여러분의 삶에서 그 행복을 보면 그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들은 그 행복의 원천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역경을 겪는 모습을 볼 때 더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행복을 느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대로 살 때 받는 약속된 결과입니다.(모사이야서 2:41 참조)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행복을 관찰해 온 사람들은 회복된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도록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들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의무와 멋진 기회를 주었습니다. 성약을 맺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 특히 친구나 가족에게 더 큰 행복을 찾도록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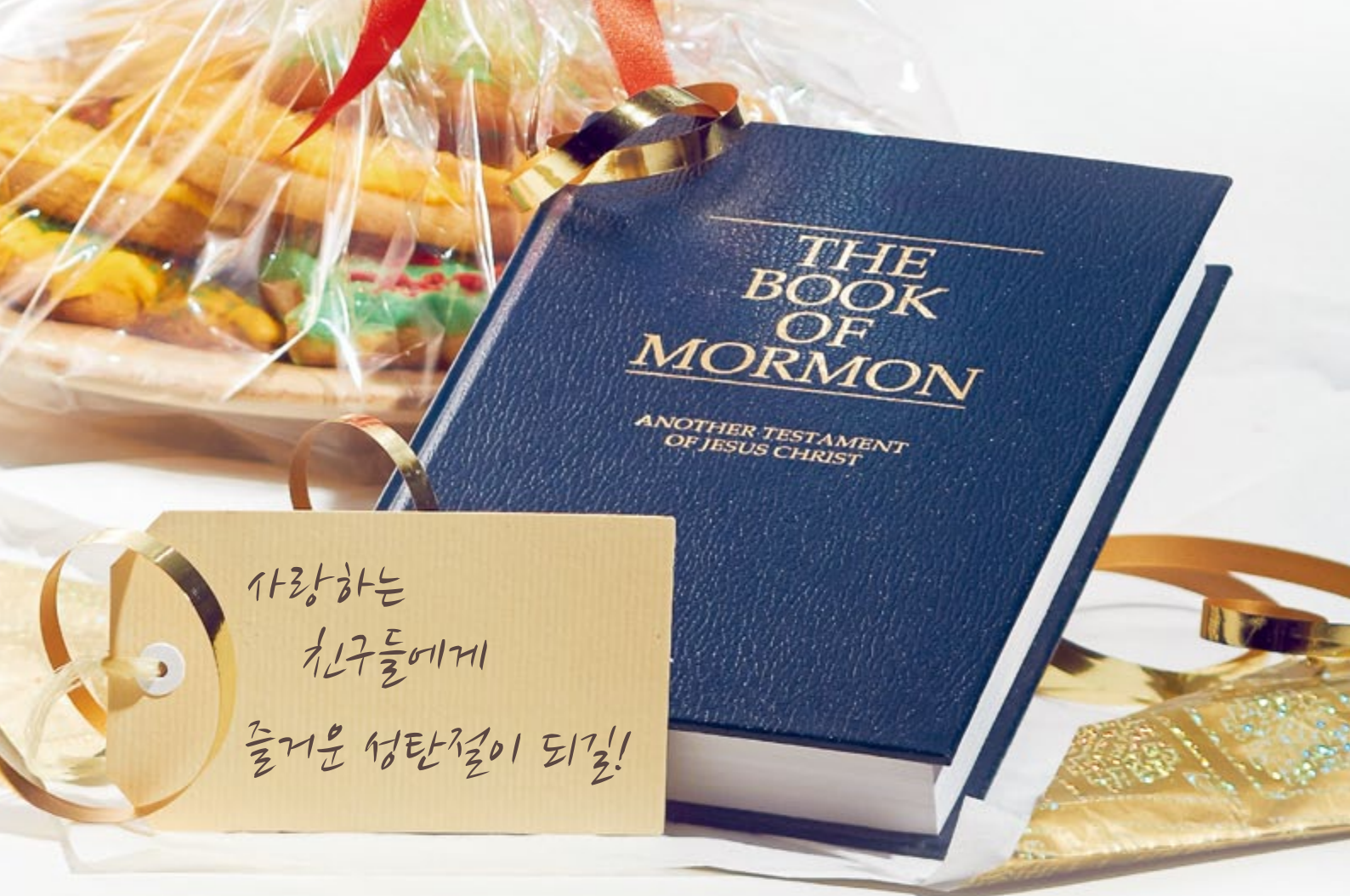
주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기회를 보셨고 다음과 같은 계명으로 여러분의 의무를 설명하셨습니다. “경고를 받은 각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웃에게 경고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교리와 성약 88:81)

주님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 때 일어나는 마음속의 변화를 통해 계명에 좀 더 쉽게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그들이 여러분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도 커집니다.

그런 변화의 한 예로, 여러분이 주님의 선교 사업을 돕는 기회를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이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임 선교사들은 곧 참된 개종자들에게 소개를 요청하면 따뜻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개종자는 친구와 가족에게 자신이 누리는 행복을 나누고자 염원합니다.

여러분의 워드 선교 책임자나 선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할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커다란 칭찬이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행복을 보았으며, 따라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자신이 왕국으로 나아오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선교사들에게 친구들을 만나도록 소개하면서 그들을 잃을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선교사들을 거절하긴 했지만 제게 그토록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에 오래도록 고마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져온 행복을 보았으며, 여러분은 그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즐거운 성탄절이 되길!

복음을 소개함으로써 영원한 우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 특히 가족에게 행복의 계획을 따르도록 권유하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한 권유를 할 가장 훌륭한 기회는 교회의 여러 성전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생전에 기회가 없었던 우리의 조상들에게 구원 의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희망으로 여러분을 내려다봅니다. 주님은 그들이 그분 왕국으로 올 기회를 얻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으며(교리와 성약 137:7~8 참조)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들에 대한 사랑을 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선교사들에게 가르칠 사람들을 소개할 때 기쁨을 느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성전 의식을 행하면서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을 위해 의식을

행할 때는 그 기쁨이 더 컸을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우리가 조상을 위해 성전에서 대리 의식을 행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니다.(교리와 성약 128:18 참조)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은 구주와 그분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기쁨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으로 그분께 우리의 감사함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사람들을 소개하고 성전에 조상의 이름을 제출할 때 감사는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러한 감사의 표현은 친구와 가족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게 해 줄 것입니다. ■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아 이어링 회장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눔으로써 구주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복음이라는 선물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축복했는지 이야기한다. 그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선물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을 떠올리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라고 권한다.

간증 나누기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에 자신의 간증을 몰몬경 안에 적어서 친구나 이웃에게 주는 것으로 복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준비해 보세요.

1. 종이에 가로 세로가 각각 11cm, 16cm 정도 되는 직사각형을 그려 어른의 도움을 받아 오릅니다.
2.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거나 사진으로 찍어 종이 위쪽에 붙입니다.
3. 그림이나 사진 아래에 여러분의 간증을 적습니다.
4. 어른의 도움을 받아 그 종이를 몰몬경 표지 안쪽에 붙입니다.



청소년

내가 몰몬경을 전할 수 있을까?

조시 아넷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미나리 선생님께서 몰몬경을 비회원 친구들에게 나눠 주라는 권유를 하셨다. 나는 무척 소심한 성격이었지만 그 권유를 받아들였다.

용기를 내는 데만 며칠이 걸렸다. 하지만 나는 결국 친구 브리트니에게 점심 시간 때 몰몬경을 주며 짧은 간증을 나눴다. 브리트니는 몰몬경을 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해 학기말에 브리트니는 이사 갔지만 우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브리트니는 나에게 전학간 학교에 대해 이야기했고, 친구 대부분이 교회 회원이라는 말도 했지만 영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에 변화가 일어났다. 브리트니에게 연락이 왔는데 놀랄 만한 소식이 있다고 했다. 침례를 받을 거라면서 나에게 친구가 되어 주고 좋은 모범을 보여 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아셨고, 선교 사업 경험이 없는 수줍은 열다섯 살 소년인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 나는 영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회복된 복음을 배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음을 안다. 나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나아오도록 돕는다면 “[우리]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클 것인지]” 안다. (교리와 성약 18:15)

글쓴이는 미국 워싱턴에 산다.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누구와 나눌지 알기 위해 간구한다. 구주의 삶과 사명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방문 교육을 통해 여러분이 돌보는 자매들을 축복할 수 있는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reliefsociety.lds.org에 접속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 독생자

다음은 구주의 사명에 관한 여러 측면을 소개하는 방문 교육 메시지 연재 기사이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로 불린다. 필멸의 어머니와 불멸의 아버지를 통해 지상에 태어난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아버지인 하나님께 신성한 권능을 물려받았다. 그분은 어머니인 마리아에게서는 필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굶주림과 목마름, 피로와 고통, 죽음을 겪으셔야 했다.¹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기에 자신의 생명을 버렸다가 다시 취할 수도 있으셨다. 경전에서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우리가 “부활을 얻[는다]”(야곱서 4:11)고 가르친다. 우리는 또한 “믿[음이 있다면] 불멸의 몸으로 일으킴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교리와 성약 29:43) 된다는 것을 배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것의 의미를 좀 더 확실히 이해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더욱 커질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1)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그분의 지위, (2) 그분의



무한한 속죄, 그리고 (3) 문자 그대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자 확신”²이라고 말씀했다. 현대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은 독생자였으며 세상의 구속주”³라고 간증했다.

성구에서

요한복음 3:16; 교리와 성약 20:21~24; 모세서 5:6~9

주

1. 복음 원리(2009), 52~53쪽 참조.
2.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는 법”, *리아호나*, 2012년 9월호, 13쪽.
3.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2~3쪽.



신앙, 가족, 구제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신약전서에는 이름이 알려졌든 그렇지 않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그분의 성역과 기적과 위대함에 대해 간증했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들은 귀감이 되는 제자가 되었으며 구원의 계획에서 중요한 증인이 되었다.

예를 들어, 마르다는 주님께 다음과 같이 구주의 신성에 대한 강한 간증을 표현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요한복음 11:27).

구주의 신성에 대한 초기 증인들에는 그분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마리아의 사촌인 엘리사벳이 있다.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은 후 곧바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갔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문안을 받자마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누가복음 1:41) 마리아가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가 될 것임을 간증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나에게 왜 중요한가?
2. 성약을 지킬 때 어떻게 신앙이 커질 수 있는가?

영광 중에 지상으로 돌아오실 주님

선교 사업,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 등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영생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¹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 필멸의 생애를 목격한 사람은 비교적 적었다. 하지만 그분이 “권능과 큰 영광으로” (교리와 성약 29:11) 돌아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이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재림과 함께 복천년이 도래할 것이며, 그때 구주께서는 “천 년 동안 지상에서 사람과 더불어 의롭게 거하[실]”(교리와 성약 29:11) 것이다.

경전에서는 재림에 앞서 일어날 많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 대배도,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감(데살로니가후서 2:1~3; 디모데후서 4:3~4 참조)
- 복음 및 신권 회복, 물몬경 출현(이사야 29:4~18; 사도행전 3:19~21 참조)
-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됨(마태복음 24:14 참조)
- 전쟁과 사악함, 자연 재해(마태복음 24:6~7; 디모데후서 3:1~7 참조)
- “이적[이] 하늘과 땅에 베풀[어짐]”(요엘 2:30; 또한 마태복음 24:29~30; 교리와 성약 29:14~16; 49:23 참조)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징조가 보이기 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언제 돌아오실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 시와 그 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알지 못하니, 그가 올 때까지 알지 못하리라.”(교리와 성약 49:7)

구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이들도 있을 것이다. 재림은 사악한 사람에게는 두려운 때가 되겠지만 의로운 이에게는 평화와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전과 후기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구주께서 언제 다시 오시느냐에 상관없이 그분을 만날 것을 준비하는 생활을 하라고 가르친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리고 내가 나의 영광 중에 올 그 날에 내가 열 처녀에 관하여 말한 비유가 이루어지리라.

무릇 슬기로우며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자기들의 인도자로 삼아 속임을 받지 아니한 자는-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찢혀 불 속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그 날을 견디리라.”(교리와 성약 45:56~57; 또한 마태복음 25:1~13 참조) ■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누가복음 21장; 베드로후서 3장; 교리와 성약 45:16~52; 88:87~107; 133:17~56을 참조한다.

주

1. 이를테면,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의 “자녀들의 마음은 돌이켜질 것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24쪽과 닐 에이 앤더슨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십시오”,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49쪽을 참조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지상에 돌아오시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입니다.’(이사야 40:5)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며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그분 앞에 경배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와 마음속의 소망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3쪽



재림 전에 지진, 폭풍우,
천둥과 번개, 바다의
파도가 “그 경계를
넘어”(교리와 성약
88:89~90 참조) 밀어닥칠
것이다.



“여호와와 그의 큰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요엘 2:31)

구주께서는 영광 중에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그의 임재하심의 영광이 심히
클 것이므로 해가 부끄러워 그 얼굴을
가릴 것이요”(교리와 성약 133:49)



구주께서는 감람 산에 서실 것이며
유대인들이 “당신의 손과 당신의
발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이니이까
하니” 구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다. “이 상처들은 내가 나의
친구들 집에서 입은 상처니라. ……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니라.”
(교리와 성약 45:48~52 참조)

의로운 자들은
부활하여 끌려 올라가
구름 속에서 구주를
만나 볼 것이다.(교리와
성약 88:95~97 참조)



아이들이 성신을 인식하도록 돕는 일

아이들이 간증을 발전시키도록 돕기 위해 성신이 우리와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메릴리 브라운 보이액

네 아들을 둔 부모로서 남편과 나는 언제나 아이들이 성신을 느끼고 간증을 얻도록 돕고자 노력한다. 우리는 특이한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서점에 서 있을 때 성신의 속삭임을 느꼈다.

큰 아들의 사회 과목 성적이 떨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아들과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아들을 격려했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다. 우리는 아들을 돕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기도했다. 어느 날 서점에 있는데, 싸게 파는 수많은 책 중 하나를 사라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

그 책의 내용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독특한 학습 방식이 있다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이 시각적인 학습자라는 것, 다시 말해 보는 것을 통해 가장 잘 배운다는 것이다. 이런 학습자들은 대개 그림과 독서를 좋아한다. 어떤 이들은 말로 가장 잘 배운다. 귀로 듣는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한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음악을 좋아한다. 마지막 유형은 몸으로 배우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동작이나 활동을 함께 할 때 가장 잘 배운다. 때로 이들은 교사가 가만히 앉아 있도록 강요하는 학교 생활을 힘들어한다. 이들은 움직일 때 가장 잘 배운다.



바로 이게 답이었다! 아들은 분명 청각 학습자였고, 그래서 음악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다! 우리는 아들이 종종 다른 활동 때문에 사회 수업 시간을 빠졌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집에 가서 수업

자료를 읽어 오라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들은 수업 시간에 하는 토론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이 점을 이해하게 되자 우리는 아들에게 숙제로 받은 자료를 소리 내어 읽고 우리와 함께 토론하자고 했다. 아들의

성적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영적인 경험을 장려하여

하지만 학습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점을 더 알아보고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성신은 종종 아이들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영이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한다고 가르쳤다. 성신은 그의 언어를 모든 사람, 심지어 어린 아이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신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이해 수준에 자신을 맞추십니다. 만일 그분께서 어린 아이에게 오신다면, 그분께서는 자신을 어린아이의 언어와 이해력에 알맞게 자신을 맞추실 것입니다.”(조셉 스미스, *교회사*, 3:392)¹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영이 의사전달 방식에 변화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모는 아이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신의 가르침을 배우도록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이사야 54:13)

앞서 말했듯이 우리 큰 아들의 주요한 학습 방법은 말을 통하는 것이다. 큰 아들과 셋째 아들이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서 종종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의 아름다운 노래와 클래식 음악을 틀어 놓는다. 자녀들은 이런 환경에서 영을 강하게 느꼈다. 또한 복음에 대한 활발한 토론도 많이 했는데,

이를 통해 아이들은 그들이 듣는 진리에 대해 영이 주는 확신을 느끼기도 했다.

다른 아들은 시각적인 학습자임이 분명했다. 그 애는 독서를 좋아했고 경전이나 복음 서적을 읽을 때 영을 가장 잘 느꼈다. 우리는 아이가 영을 느끼고 간증을 얻도록 돕기 위해 책을 많이 주었다. 또한 복음과 관련된 장면이 나오는 그림과 말씀을 벽에 붙여서 우리 집이 풍부한 시각적 학습 공간이 될 수 있게 했다.

둘째 아들은 시각 및 운동 감각 학습자였다. 그 애는 아주 활발해서 아빠와 산악 자전거를 타거나 등산을 할 때 가장 행복했다. 우리는 둘째가 야외에서 활동할 때 영을 가장 잘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여러 번 가족 야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지 창조, 구원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메시지들은 둘째가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아이의 마음에 강력하게 전달되었다.

또한 남편과 나는 봉사할 때 운동 감각적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과 많은 봉사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보고, 듣고,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것은 놀라운 환경을 조성했는데 아들들 모두 자애와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에 대한 교훈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고, 이런 활동은 특히 우리 둘째 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듣기와 이해

우리는 또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성신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주일학교 공과를 가르칠 때 “영을 어떻게 느끼나요?”라고 물었다. 나는 그들의 대답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어떤 이는 “생각이 분명해져요.”라고 했고, “내면에서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또는 “깊은 평화를 느껴요.”라는 대답도 있었다. 교회에 들어온 지 몇 개월 안 된 어느 자매는 “온 몸이 오싹해져요!”라고도 말했다. 몇몇은 가끔 어떤 음성이 “들리거나”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다고 대답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더욱 친근한 형태의 계시 또는 영감은 마음에 전해지는 말이나 생각(이노스서 1:10; 교리와 성약 8:2-3 참조), 갑작스런 깨달음(교리와 성약 6:14~15 참조), 제안된 행동 과정에 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느낌, 또는 예술 작품에서처럼 영감에 찬 공연으로도 옵니다. …… ‘영감은 소리보다는 오히려 느낌으로 더 많이 옵니다.’”²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성신의 속삭임을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단순히 따뜻한 느낌이 들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벗어나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런 느낌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영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 칠십인 회장단이신 제이 이 켄슨 장로님은 어느 선교부를 방문한 사도의 이야기를 해 주셨다. 이곳저곳에서 지역 대회를 하던 이 사도는 앞선 지역 대회에서 말씀한 칠십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선교사들의 마음에 형제님이 해결해 주실 수 없을 만큼의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지역의 교회를 방문하면서 저는 가슴이 타오르는 느낌을 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저에게 그들이 오랫동안 금식과 기도를 했지만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해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켄슨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 해 동안, 저는 주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시고, 확인하시거나 지침을 주십니다.”³ 우리 자녀들에게 영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을 깨닫고 그에 따라 그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녀를 가르칠 때 우리는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에 관한 원리를 이야기한다. 아이들에게 임할 영의 속삭임을 듣고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은 이렇게 권고하셨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곁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모든 힘과 신앙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또한 더 높은 권능으로부터 오는 더 위대한 힘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⁴

성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인도를 받는 것은 우리 삶에서 큰 축복이다. 영의 속삭임, 느낌, 지침을 듣고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가르칠 때 우리의 아이들은 개인적인 간증을 얻게 될 것이며, 이 간증은 미래에 그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 성신은 아이들과 항상 함께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으며, 그들은 성신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부모로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돕고 자녀들이 축복받도록 도울 수 있다. ■

글쓴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산다.

주

1. 제럴드 코세, “어린 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느니라”,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32쪽.
2. 델린 에이치 옥스, “계시가 있는 8가지 이유”, *리아호나*, 2004년 9월호, 8쪽.
3. 제이 이 켄슨, “나는 영의 응답을 받은 적이 있는가?” *성도의 빛*, 1989년 9월호, 21~22쪽.
4. 고든 비 힝클리, “이들, 우리의 어린 자들”, *리아호나*, 2007년 12월호, 7쪽.



회개

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한다.

이번 호 리아호나, 54~55쪽에 실린 기사에서 칠십인 브래들리 디 포스터 장로는 때로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지어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 고백해야 될 때 두려워한다고 설명한다. “회개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라면 그 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은 후에 돌아켜 보면 이러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

출발하자마자 여러분은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

감독님은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과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독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결코 그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청소년을 가르칠 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회개 부분을 청소년들과 함께 읽는다. 그리고 속죄를 통해 받는 축복과, 어떻게 회개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또한 회개와 속죄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회개에 대한 간증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적절하다면 십 대인 자녀에게 어린 동생들이 다음 활동을 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어린이를 가르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고 명하신 길에 머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기 위해 실물 공과에 장난감 자동차(혹은 비행기, 배, 마차)를 이용한다. 지도를 펴고 자녀에게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차를 옮겨 달라고 한다. 질문한다. “자동차가 경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동차가 길에서 벗어난 게 확실할 때는 제 경로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회개와 비슷한지 질문한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옳은 길로 가기 위해 진로를 바꾸어야 할 때가 있다고 설명한다. 어떤 때는 우리 혼자 힘으로 이 일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다. 자녀들에게 스스로 이 일을 해냈던 때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던 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 이 주제를 가르칠 때 8세 미만인 어린이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개할

회개에 관한 경전 구절

잠언 28:13

이사야 1:16~18

이노스서 1:2~8

모사이야서 4:1~3; 26:30~31

엘마서 34:32~33.

힐라맨서 12:23

제3니파이 9:20~22

교리와 성약 18:10~13; 58:42~43

필요가 없음을 기억한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 원리에 대해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자녀들과 그들의 대답에 대해 토론하고, 어떻게 회개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그분들이 주신 은사인지 이야기한다. ■

더 많은 교회 소식과 행사를 보려면 news.lds.org에 접속한다.

유럽 성도들에게 전해진 엠 러셀 벨라드 장로의 말씀

십 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의 교회 회원들을 위한 방송에서, 만약 후기 성도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을 계속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초기 유럽 개척자들이 보여 준 신앙과 같은 신앙을 오늘날에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벨라드 장로는 “20년 후에 여러분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우리가 초기 북유럽 교회 회원들이 보여 준 것과 같은 신앙과 용기와 행동을 보였다고 보고할

6월 스웨덴에서 열린 모임 후에 교회 회원들과 함께 선 십이사도 정원회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수 없다면, 모든 와드, 지부, 스테이크, 지방부에서 교회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고할 수 없다면, 영의 세계에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방송은 벨라드 장로가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중계된 것 중 일부이다.

벨라드 장로는 스웨덴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을 만났고, 스톡홀름 청년 독신 성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했다. 이 모임은 유럽 지역의 402곳 집회소로 방송되었다. 벨라드 장로는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했으며, 복음 원리대로 살겠다는 청년 성인들의 선택이 교회의 미래를 좌우할 것임을 힘주어 말했다. 벨라드 장로는 개개인에게 올해 말까지 교회에 한 사람씩 데리고 오거나 저활동 회원을 다시 활동화시키라는 목표를 주었다.

벨라드 장로는 또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의 모든 집회소에 방송된 북유럽 대회에서 교회 회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북유럽 국가들의 교회 회원수는 23,000명을 넘어섰고, 집회소는 123개에 달한다.

영국 런던에서 벨라드 장로와 유럽 지역 회장단의 호세 테제이라 장로는 런던과 런던 남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을 만났다.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벨라드 장로의 간증을 들었고, 선교 사업에 대한 사도의 열정을 느꼈다.

벨라드 장로는 프랑스 베르사유에서도 선교사들을 만났다. 또한 장차 지어질 프랑스 파리 성전 부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려는 계획은 2011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발표되었다. ■

사라 제인 위버의 이야기에서 발췌, Church News

말레이어 몰몬경 출판

말레이어 몰몬경 출판이 발표됨으로써, 몰몬경은 109가지 언어로 출판되게 되었다. 슬로바키아어 몰몬경은 올해 3월에 출판되었다. 말레이어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다.

말레이어 몰몬경은 현재 지역 교회 배부센터와 온라인 상점인 store.lds.org(몰품번호 35607348)와 scriptures.lds.org에서 구할 수 있다.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LDS.org 자료

수십 년 동안 교사와, 지도자, 부모들은 복음을 가르칠 때마다, *프렌드*(Friend)와 *리아호나*를 참고해 왔다. 이제 그 자료들 일부를 LDS.org에서 구할 수 있으며, 이 자료는 여러분이 유용한 공과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주제, 범주별로 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또 LDS.org 검색창에 영어로 “Resources for Teaching Children(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자료)”라고 입력하면 초등회 공과 번호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초등회 교재 화면에서도 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자료의 주제 부분은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도 이용 가능하며 그 언어로 LDS.org와 *리아호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자료에는 가정과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이야기, 활동, *리아호나* 기사, 기타 교회가 승인한 미디어 등이 있다. 주제는 매달 추가될 것이다.

카밀 웨스트의 이야기에서 발췌, 소식과 행사

초등회 창립 135주년 기념

미국 유타 파밍턴에서 135년 전, 존 더블유 헤스 감독은 와드 어린이들의 행실 때문에 고민했다. 그는 와드의 어머니들을 불러모아 어린 자녀들의 영적인 발전을 이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오렐리아 스펜서 로저스는 1878년 봄에 파밍턴을 방문한 엘리자 알 스노우와 이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스노우 자매는 존 테일러 회장을 만났고, 테일러 회장은 헤스 감독에게 와드의 어린이를 위한 조직을

만들어도 좋다고 승인했다. 파밍턴 와드 초등회는 1878년 8월 11일에 공식적으로 조직되었으며, 로저스 자매가 회장으로 부름받았다.

현재, 전 세계에서는 약 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매주 초등회에 참여하며 큰 유익을 얻고 있다. 초등회 지도자와 교사들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는 일에서 부모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본부 초등회 회장단인 로즈메리 엠 워쇼, 진 에이 스티븐스, 쉐릴 에이 에스플린의 이야기에서 발췌



최초의 초등회 모임, 린 포셋과 고든 쿵.



초등회 지도자들과 교사들은 어린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도록 돕기 위해 힘쓴다.





주 믿는 신도여

위대한 임마누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상황, 과거의 사건 등 어느 것이든
우리를 속박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해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700년도 훨씬 전에,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 예언했으며, 그 예언은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이 쓴 오라토리오 *메시아*에서도 다음과 같이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이사야 9:6)

헨델의 *메시아*에서는 또한 이사야 40장 9절에 나오는 경고를 장엄한 선율로 전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¹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강보에 싸인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가난하고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셔서 평범한 사람으로 못 사람들 가운데 걸으셨던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무한하고 영원한 구속주이셨으나 육체를 입고 자신이 창조하신 바로 그 지구에 내려와 사셨던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베들레헴의 성스러운 첫 번째 성탄절로 함께 돌아가 우리 주님의 탄생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임마누엘이자(이사야 7:14 참조) 이새의 즐거이이며(이사야 11:1 참조) 돌는 해이시며(누가복음 1:78 참조) 전능한 주님이신(고린도후서 6:18 참조) 그분은 조용한 밤에 절정의 시기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창조주께서 지상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 강림, 베르나르도 스티븐슨, ISTOCKPHOTO/THINKSTOCK



인간으로 낮추어 오심을 나타냅니다.(니파이전서 11:16~27 참조) 이사야는 그 사건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이사야 9:2)

현대의 계시를 통해 우리는 예임된 이스라엘 왕이 지상에 탄생하신 계절이 봄이라는 것을 압니다.(교리와 성약 20:1 참조) 미가는 그분께서 “유다 족속 중에 작[은]”(미가 5:2)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마을은 큰 성 예루살렘 가까이, 북쪽으로 8km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지방의 수도이자 성전이 있는 곳이었으며, 로마인들의 요새였습니다. 반면, 베들레헴은 농경과 목축업을 하는 소박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유일한 명성은 고대 이스라엘 왕이자 장차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혈통이었던 다윗 왕의 출생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작은 마을은 보통으로 다윗의 동네로 알려졌습니다. 히브리어인 마을 이름 **베들레헴**(Beth Lechem)은 “떡의 집”²을 의미합니다. 이 명칭은 생명의 떡으로 알려진 주님께서 탄생하시기 전까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니다.

베들레헴 주변의 들판에서 수많은 양떼가 풀을 뜯었고, 이른 봄은 예로부터 양들이 새끼를 낳는 시기였습니다. 목자들은 청명한 밤하늘

그분은 삶의 모든 양상을, 위와 아래 모든 각도에서 완전히 아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존재였던 그분은 스스로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하늘의 목자가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아래에서 양떼를 돌보느라 대부분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따라서 구주의 탄생을 알린 천사들은 목자들을 깨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양의 번식기에 태어난 그 사내아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한복음 1:29; 니파이전서 11:31; 교리와 성약 88:106)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명칭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새끼 양들이 태어나는 그 시기에 함께 태어나신 주님은 훗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사야 53:7)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분은 또한 양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이셨습니다.(요한복음 10:11 참조) 따라서 그분의 삶을 나타내는 이 한 쌍의 상징은 봉사하고 또 봉사를 받는 이들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가 이 두 역할을 다 맡으시는 것은 참으로 타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생에서는 “만물 아래로도 내려가셨지만”(교리와 성약 88:6) 영원히 “높이 [오르셨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계시고, 만물 주위에 계시기”(교리와 성약 88:6, 41) 때문입니다. 그분은 삶의 모든 양상을, 위와 아래 모든 각도에서 완전히 아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존재였던 그분은 스스로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하늘의 목자가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위대한 선지자의 탄생, 왕가에 약속된 후계자의 도래나, 지상을 걸었던 사람 중 유일하게 완전한 사람의 탄생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그의 몸을 낮추어 인간이 되[시기]”³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창조자이자 구약전서에 나오는 위대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시내산에서 들렸던 것은 그분의 목소리였고,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돌 때 그들을 지탱해 준 것은 바로 그분의 힘이었으며, 에녹과 이사야와 모든 다른 선지자에게 장차 있을 영광을 드러내신 것도 그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주님이 처음으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실 때, 그분은 힘없고 의존해야 하는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고대 히브리 전통에 따르면 메시아는 유월절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절정의 시기에 실제로 유월절 만찬 주간이 그 4월에 있었음을 압니다. 유월절은 애굽 장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멸망의 천사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성스러운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자기 집의 목재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가족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출애굽기 12:3~30 참조) 그리스도가 유월절에 나시고 33년 후, 그분은 죽음과 죄라는 멸망의 천사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나무 십자가 위에 흘리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목을 방이 없었던 것은 유월절 만찬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의 유동 인구는 유월절 기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여행자들은 주변 마을에서 숙소를

구해야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에 따라 호적하기 위해 요셉의 조상이 살았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호적하는 것은 그 해 어느 때라도 베들레헴에 가서 하면 되었지만, 모세 율법에 따라 모든 남성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야 했으므로 그들은 유월절을 택했을 것입니다.⁴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인근이었기에 나사렛에서 온 요셉 부부는 한 번에 두 가지 의무를 다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꽤나 못된 사람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이면 늘 봄비는 그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나사렛에서 온 이 부부에게 줄 방이 없었던 그를 나무랄 수만은 없습니다. 유월절 순례자 대부분이 예루살렘 주변 들판에 천막을 치고 자는 동안 다른 많은 사람들은 숙소로도 알려진 여관에서 머물 곳을 찾았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여관이 투숙객으로 넘쳐나는 것은 당연했고, 그 여관 주인은 아마도 친절을 베풀어 마구간을 내 주었을 것입니다.

혹 그들이 여관에서 방을 구했다손 치더라도 환경은

고대 히브리 전통에 따르면 메시아는 유월절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절정의 시기에 실제로 유월절 만찬 주간이 그 4월에 있었음을 압니다.



매우 열악했을 것입니다. 전형적인 석조 건축물이었던 그 당시 여인숙은 작은 방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각 방은 세 개의 벽으로만 둘러져 있어서 한쪽 면은 밖으로 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구간은 벽으로 둘러싸인 안마당, 혹은 석회암 동굴 같았으며, 투숙객이 데려온 동물들이 거기서 지냈습니다.⁵ 그곳이 안마당이었던 동굴이나 다른 피난처였던, 가축 사이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탄생은 봄비는 여관 안보다 뚜렷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그곳은 평화로웠고, 사생활이 보장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마구간을 받은 것은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성스러운 탄생이 경건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박된 자들에게 자유를

첫 번째 성탄절이 있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기록했고, 구주는 나중에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에게 그 예언을 읽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이사야 61:1; 또한 누가복음 4:18~19 참조)

속박당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구속당한 자가 갇혀 있는 옥의 문을 여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읽을 때, 우리는 아마 영의 세계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행한 그분의 성역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속박당한 자가 아닙니까?* 필멸하는 이 육신의 쇠락과 나약함, 육체의 유희, 질병, 그리고 결국 사망에 속박되어 있기에 우리는 모두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위대한 임마누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상황, 과거의 사건 등 어느 것이든 우리를 속박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해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주님은 속박당한 자들에게 자유를, 즉 죽음의 속박, 죄와 무지, 교만, 실수라는 감옥에서 나와 자유롭게 됨을 선포하십니다. 그분께서 죄수들에게 “나오라”(이사야 49:9)고 말씀하시리라는 것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주님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며, 회개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약 30년 전에 알게 된 한 사람이 있는데, 편의상 토마스

부르겠습니다. 당시 토마스는 45세였습니다. 토마스보다 20년 앞서 그의 부모님이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토마스는 부모님의 새로운 종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아들을 사랑했기에 언젠가 아들이 회복된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아들에게 적어도 선교사들과 만나 이야기라도 들어 보라고 수 차례 설득했습니다. 아들은 계속 거절했으며 부모님의 종교적 신념을 비웃었습니다.

어느 날 절망적인 심정으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선교사와 한 번만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본다면 다시는 교회 이야기를 꺼내지 않오마.” 토마스는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선교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 세 토론 동안 그는 교만한 마음으로 앉아서 장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이따금씩 조롱했습니다.

네 번째 토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복음의 첫 번째 원리에 관한 것이었는데, 토마스는 평상시와 다르게 조용했고, 경청만 했습니다. 토론 말미에 장로들은 구주에 대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는 성경을 펼쳐 다음 구절을 읽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마태복음 11:28~29)

갑자기 토마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내 삶은 끔찍했어요. 내 죄에 대한 기억이 뇌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하겠어요.”

그의 교만한 죄와 죄책감에 사로잡힌 영혼을 숨긴 가면과도 같았습니다. 장로들은 토마스에게 회개하고 침례와 확인을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자유로워지게 해 줄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속죄의 권능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그 이후로, 토마스의 삶에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회개하고 극복해야 할 것이 많았지만 주님의 축복으로 그는 침례를 받을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20년이 훨씬 더 흐른 후,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성전 예배실에 앉아 있었는데 제 앞에 있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뒤를 돌아보며 “포터 장로님이 아니십니까?”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속박에서 자유로워졌고 여전히 주님의 교회에서 충실한 토마스라는 것을 알아보고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하게 기도로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권능이 매일 우리의 삶과 함께하며, 크든 작든 개인적인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간청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거룩한 밤

1987년 12월, 성탄절을 2주 정도 앞두고 있을 때 저는 이스라엘로 출장을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성지는 전혀 평화롭지 못할 때였습니다. 서안 지구에는 시위가 일어났고, 옛 예루살렘 시가지는 텅 비었으며,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정치적 긴장감이 팽배했고, 설상가상으로 차가운 비가 한 주 내내 내렸습니다. 폭력 사태를 염려한 관광객들은 모여서 몸을 사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루살렘을 가로질러 걷고 있을 때 평화가 제 마음에 임해 이곳이 구속주께서 참으로 사랑했던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탄절이 되기 전 금요일 늦은 시간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틀 후 안식일이 되었을 때, 알람 시계에서 울리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가 저를 깨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하게 기도로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권능이 매일
우리의 삶과
함께하며, 크든
작든 개인적인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간청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⁶

그 음악과 메시지가 제 마음속 깊이 와 닿았고, 이스라엘 구속주의 영광스러운 희생과 완벽한 삶을 생각하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은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고 약한 자들의 희망이 되어 주시기 위해 지상에 오셨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한 경험을 떠올리자, 지상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멍에를 짊어지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제 온 몸을 채웠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친구로 여기신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일요일 이른 아침에 느꼈던 그 감정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느낌은 제가 여태껏 받았던 것 중에서 가장 순수한 간증이었습니다.

구속주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심을 압니다. 저는 그분께서 속박당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임되셨음을 압니다. 그분의 탄생과 삶을 기리며 외칩니다. “앞드려 절하세.”⁷ ■

2008년 12월 9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열린 영적 모임에서 전한 말씀 “A Child Is Born(아기 나셨네)”에서 발췌 영어로 된 전문은 speeches.byu.edu에서 볼 수 있다.

주

1. *The Messiah*, ed. T. Tertius Noble (1912), vi.
2. 경전 안내서, “베들레헴”, scriptures.lds.org 참조.
3. “하늘 중에 사시는 하나님”, 찬송가, 105장.
4. Bible Dictionary, “Feasts” 참조.
5. 리셀 엠 벨슨, “구주께서 살아 계심을 앞으로써 평안과 기쁨을 느낍니다”, *리아호나*, 2011년 12월호, 21쪽 참조.
6. “Cantique de Noël” (“O Holy Night”), *Recreational Songs* (1949), 143.
7. “주 믿는 신도여”, 찬송가, 127장.

색인 작업은 중요합니다

색인 작업을 통해서 더 많은 기록을 온라인 상에서 볼 수 있게 된 회원들은 가족 이름을 찾아서 성전에 가져갈 수 있다.

제니퍼 그레이스 존스
교회 잡지

“**사** 무엘이 새벽 5시에 이 컴퓨터를 쓸 예정임”이라고 쓴 작은 쪽지가 키보드에 붙어 있다. 스테이크 회장님이 이름 백 만개를 색인 작업하라는 도전 과제를 주자, 유타에 사는 열네 살 된 사무엘 비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등교하기 전에 색인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집에는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고 여섯 남매가 컴퓨터로 숙제를 하기 때문에 사무엘은 잠자는 시간을 줄여 컴퓨터를 쓸 수밖에 없었다.

사무엘의 열정은 가족 모두에게 번져 나갔다. 곧 네이션은 농구하는 시간을, 이블린은 독서 시간을 희생해서 색인 작업에 할애했다. “아이들만큼 제게 강한 자극을 준 사람은 없었죠.” 사무엘의 아버지는 말한다. “아이들이 색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일을 어렵게만 생각했어요. 색인 작업이 쉽고 재미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서 배웠습니다.” 새해 전날 밤 아이들은 자정이 되기 전에 서둘러 그 해의 색인 작업 목표를 완수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과테말라에 사는 라누자 가족도 똑같은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다섯 명의 자녀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사는 이 아홉 식구에게도 컴퓨터는 한 대뿐이었다. 아이들은 숙제 때문에, 엄마는 대학교 공부 때문에, 아빠는 업무용으로 컴퓨터를 쓰기에 언제나 컴퓨터 앞 자리는 붐볐고, 그래서 가족들은 돌아가며 색인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가족은 2011년에 37,000개 이상의 기록에 대한 색인 작업을 완료했다.

이 아이들과 가족들은 십이사도 정원회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2011년 10월에 교회 청소년들에게 준 도전

과제를 받아들였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은 가족 역사 사업이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경전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발표한 지침을 보면 이 중요한 봉사를 나이 든 성인만 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

엘리아의 영에 대해 배우고 직접 경험해 보도록 권고합니다.”

빠르고 쉬운 가족 역사 작업

색인 작업은 누구에게든 가족 역사를 시작하고 엘리아의 영을 경험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다. 수세기 동안 정부와 교회에서 개인과 가족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 왔으나 이런 기록들은 열람하기도 힘들 뿐더러 분류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었다. 예전에는 조상들이 살던 곳을 떠난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가서 기록을 뒤져야 했다. 가족의 이름을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이 말이다.

2006년에 소개된 FamilySearch 색인 작업은 가족 역사 연구를 가속화시켰다. 한때 손으로 쓴 종이 기록에 감춰져 먼 보관소에 저장되었던 이름들이 이제 색인화되어 컴퓨터로 즉시 이름을 검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색인 작업 봉사자들은 자신의 컴퓨터에 10~50개 이름이 담긴 기록 “배치”를 다운로드 받았다. 그들은 이름, 날짜, 기타 정보를 FamilySearch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검색 가능한 전자 색인을 완성시켰다.

FamilySearch 색인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쓰던 예전의 이름 추출 방법으로는 기록 한 묶음을 검색 가능한 색인으로 만들려면 몇 년이 소요되었다. FamilySearch 색인 작업 책임자인 마이클 저드슨은 프리드먼 बैं크 레코드(Freedman

Bank Records: 은행 계좌를 개설한 미국의 해방 노예들의 기록)에 대한 색인 작업에만 11년이 걸렸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제는 몇 개월이면 작업이 끝날 수 있다.

전 세계 자원 봉사자들이 2006년부터 10억 개 이상의 기록에 대해 색인 작업을 해 왔지만 아직도 할 일은 많다. 수십억 개의 추가 기록이 유타 솔트레이크시티의 화강암 동굴 기록 보관소(Granite Mountain Records Vault)에서 작업을 기다리고 있다. 그 외에도 전 세계의 다른 보관소에서도 기록을 찾고 있다. 따라서 가족 역사부는 한 달에 3500만 개의 디지털 이미지를 촬영하여 디지털 이미지로 만들고 있다.

특별한 상황, 특별한 축복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말씀했다. “회원들은 FamilySearch

색인 작업에 참여하도록 격려받고 있습니다. 이 일은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에서 필수적입니다.”² 전 세계에서 이 권고를 받아들인 회원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성도들은 전자 색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 작업은 동유럽 지역에서 가족 역사 연구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키에프에 사는 루덴코 가족은 놀라운 모범을 보여 주었다. 루덴코 부부와 그 자녀들은 인터넷으로 색인 작업을 하기 위해 인터넷 요금 지출을 감수한다. 루덴코 자매는 가족들이 쓰는 노트북을 식탁 위에 두어서 매일 여가가 날 때 색인 작업을 한다. 그녀는 한 손으로는 아기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색인 작업을 한다. 열여섯 살인 아들과 열두 살 된 딸 또한 정기적으로 색인 작업을 하며, 가족들은 때때로 정부 보관소를 찾아가 가족 이름을 조사한다. 루덴코 가족은 정기적으로 성전에 이름을 제출하고 그들의 조상들을 위해 의식을 받는다. 때로는 한 주에 여러 번 성전에 가기도 한다.

루덴코 자매는 가족 역사 작업을 통해 받은 축복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는 색인 작업과 가족 역사 사업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믿어요. 제 축복사의 축복문에 보면 이 일을 할 때 저와 제 아이들이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나오거든요. 아이들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이 세상의 나쁜 영향력에 맞설 수 있을 거예요. …… [아이들이] 이 일로 하나님의 권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많은 회원들은 색인 작업이 기술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의미 있는 봉사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국 유타에 사는 멀린다 페리는 스물네 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 목 아래로 전신이 마비되었다.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면서 페리 자매는 자신이 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기도했다.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인 레일린 앤더슨 자매가 찾아와 색인 작업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기도에 대한 답을 찾았다. 페리 자매는 이제 매일 컴퓨터 앞에서 손에 나무 막대를 테이프로 붙인 후 키보드로 글자를 친다. 그녀는 매일 한 묶음 정도의 이름을 색인화한다.

“예전처럼 저 자신만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에 더 신경 쓰게 되었어요.” 페리 자매는 말한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색인 작업을 통해 그분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영국 출리의 스테이크 회장인 데이빗 픽업은 가족 역사에 관한 발표에 귀를 기울이면서 색인 작업이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성전에서 봉사하려는 소망을 키워 줄 수 있으리라는 영감을 받았다. 하지만 평범한 데이터 입력으로만 보이는 일이 어떻게 사람들을 성전으로 인도하게 될지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색인 작업을 해 보았고, 그것이 엘리야의 영을



한층 더 자신의 삶에 불려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에게 색인 작업은 “정제하는” 일이었다. “색인 작업하는 이름뿐 아니라 자기 가족의 이름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픽업 회장은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는 한 방법으로 색인 작업을 해 보도록 권했다. 곧 그와 다른 스테이크 지도자들은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한 회원 수와 성찬식 참석률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색인 작업에 참여한 회원들이 자신의 가족 이름도 성전에 가지고 가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열일곱 살인 맥킨지 에이치는 픽업 회장의 권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색인 작업을 시작했고 그녀는 자신의 형제자매, 부모와 조부모들 역시 그 작업에 동참하도록 도왔다. 2년 안에 맥킨지는 44,000개 이상의 이름을 색인 작업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맥킨지와 그녀의 가족이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찾아 성전으로 갖고 가서 구원 의식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색인 작업을 함으로써 출리 스테이크 회원들의 삶에는 한층 더 강한 영이 임하게 되었다. 또한 색인 작업을 통해 자기 가족의 이름을 성전에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 “성전을 가기에 합당해야만 색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픽업 회장은 말한다. “하지만 색인 작업을 할 때 여러분은 정제되고, 성전에 가기에 합당해지고 싶어질 것이며, 성전에 가고 싶을 것이고, 자기 조상을 위해 의식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 이것은 제가 경험으로 알게 된 일입니다.”

색인 작업은 모든 사람을 돕는 일이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다. “보라, 나는 때가 되면 나의 일을 서둘리라”(교리와 성약 88:73) 색인 작업은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한 가지 방법이다. 보통 각자의 조상만 찾기 마련이겠지만, 색인 작업은 가족 역사 일을 가속화하는 데 모든 사람이 동참하게 해 준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찾을 수 있는 광범위한 기술 혁신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드슨 형제는 말한다. “현재 여러분은 자신의 가족 역사 조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색인 작업은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돕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입니다.” ■

주

1.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자녀들의 마음은 돌이켜질 것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26쪽.
2. 제일회장단 서신, 2012년 2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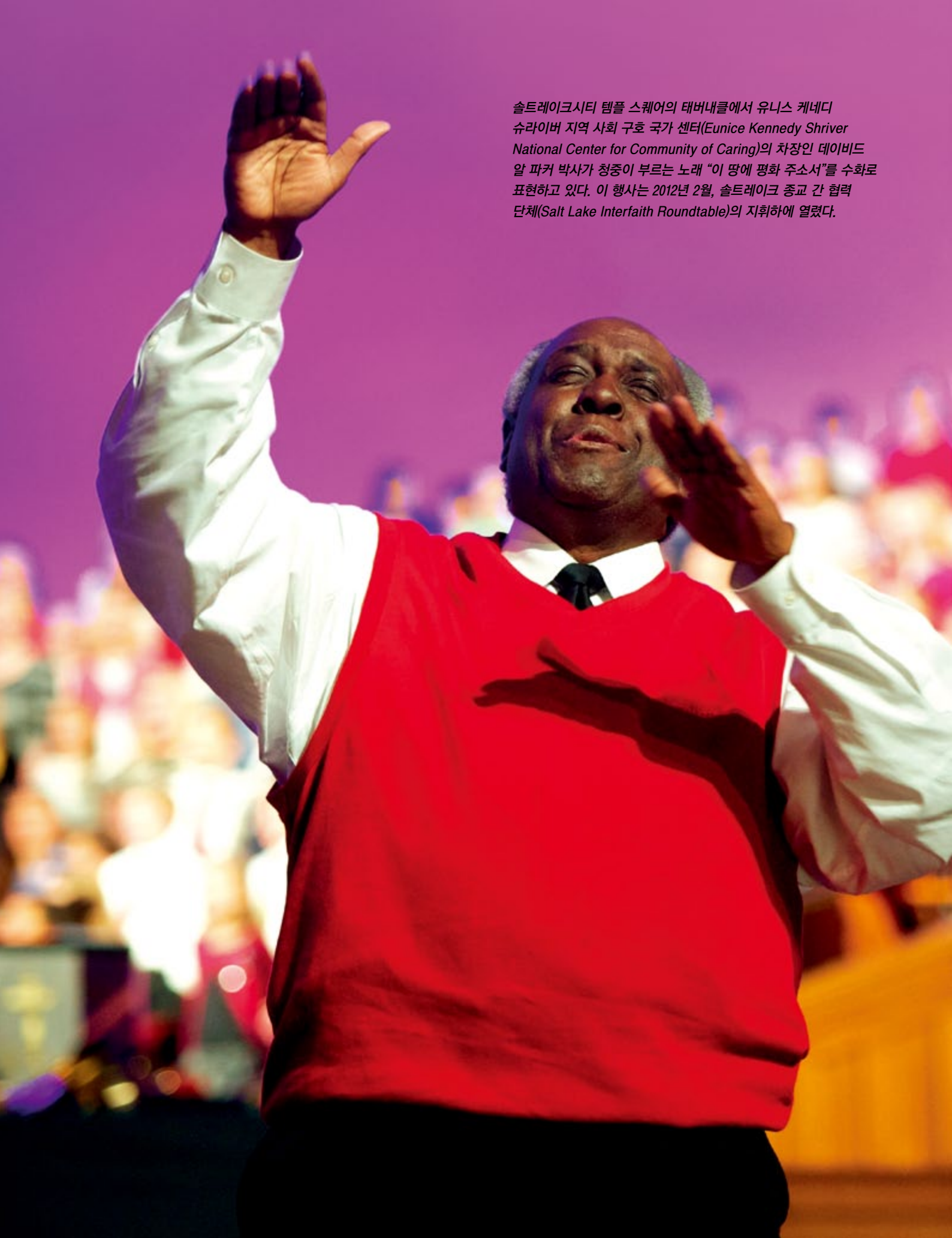
단순한 데이터 입력 그 이상의 일

처음에는 색인 작업이 지루한 데이터 입력으로만 보일지 모르나 숙련된 색인 작업자들은 이 일이 휘장 저편과 이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는 영적인 수고라고 자주 간증한다.

다음은 색인 작업이 영적으로 총명한 경험이 될 수 있게 하는 몇 가지 제안이다.

1. 기도로 시작한다. 엘리야의 영을 경험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조상에게 향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한다.
2.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것을 없앤다.(예: 영을 방해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음악)
3.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색인 작업을 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알아보기 힘든 필체를 읽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도 생긴다.
4. 여러분이 색인 작업을 하는 모든 이름은 생존하는 친척이 발견할 수도 있고 성전에서 대리의식을 받을 수도 있는 어느 개인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한다.
5. 주님이 도우시리라는 것을 기억한다. 구주를 통해 여러분은 색인 작업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린도후서 12:9~10 참조)

색인은 네덜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로 이용 가능하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familysearch.org/indexing에 접속한다.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의 태버넌클에서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 지역 사회 구호 국가 센터(Eunice Kennedy Shriver National Center for Community of Caring)의 차장인 데이비드 알 파커 박사가 청중이 부르는 노래 “이 땅에 평화 주소서”를 수화로 표현하고 있다. 이 행사는 2012년 2월, 솔트레이크 종교 간 협력 단체(Salt Lake Interfaith Roundtable)의 지휘하에 열렸다.

종교 간 협력을

통해 더 훌륭한 성도가 됩시다

타 종교인들과 더불어 봉사할 때, 우리는 지역 사회를 향상시키고
우리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자로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

베시 벤덴버그

교회 지도자들은 자주 회원들에게 종파와 관계없이 진솔한 마음으로 함께 봉사하고 도덕적인 대의에 동참하도록 촉구한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그러한 모범을 보인다. 최근,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과 부인인 헤리엇 자매님은 가톨릭 커뮤니티 서비스(Catholic Community Service-가톨릭 지역 사회 봉사단체)에서 주는 '올해의 인도주의 상'을 수상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지금은 헌신적인 물몬이 된, 전 루터교 신자 독일인 두 명이 미국 가톨릭계로부터 상을 받았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전 세계 회원들은 타 종파 사람들과 협력하여 봉사하라는 권유를 매우 잘 받아들이고 있다. 후기 성도 와드가 지역 사회의 정원을 가꾸고, 도덕적 가치에 대한 종파 간 회의를 열고, 타 종파 사람들과 지역 사회를 청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감명을 받는다.

타 종파 사람들과 함께 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는 십이사도 정원회 쿠엔틴 엘 쿡 장로님의 권유가 참됨을 알게 되었다. 그분은 타인에 대한 존경심으로 행하는, 진실한 종파 간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지역 사회를 건설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에 대해 더 큰 사랑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셨다.²

더 좋은 세상 만들기

몇 년 전, 우리 동네로 이사한 장로교 목사 한 분은 자신의 교회 신도뿐 아니라 모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했다. 후기 성도가 밀집해 있는 우리 동네에서 그녀는 친절하게 이웃을 돕고 파티에 초대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와 친해지려 노력했고, 와드 회원들도 그녀의 교회 봉사 활동에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와 다양한 종파의



홀러데이 매터스(Holiday Matters-미국 유타 홀러데이에 위치함)는 모든 종파 혹은 무신교 단체 사람들을 이웃 간 프로젝트나 활동에 초대하고 환영하기 위해 생겼다. 사진: 다양한 종파에서 온 여성들로 이루어진 창립 구성원들

이웃들은 기부 행사를 열어 의료비가 절실한 후기 성도 가족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십이사도였던 올슨 에프 휘트니(1855~1931)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하나님은 한 명 이상의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업을 이루[십니다.] …… 그 일은 한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힘듭니다.”³ 선한 사람들이 합심할 때 위대한 일이 성취될 수 있다. 이웃 목사의 노력으로 지역 사회 종파 간 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우리 스테이크 상호부조회가 포함된 여성 회의가 열려, 난민 구호기관에 위생 키트와 책을 보내는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런 종파 간 연합으로 스테이크 회원들은 수많은 난민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다른 교회가 노숙자 쉼터에서 일할 자원봉사자들을 필요로 했을 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우리는 …… 다른 교회 및 조직과 함께 협력할 책임이 있습니다.”⁴라고 말씀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인도주의 봉사를 능가하는 축복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다.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전한 연설에서 십이사도 정원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열린, 후기 성도와 기독교 복음주의파 사이의 담화를 언급했다.⁵ 한 저명한 신학자가 자신이 속한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물문의 신앙에 관해 잘못 이야기한 것을 사과한 것은 그 회의에서 얻은 성과 중 하나였다.⁶ 이러한 관계 강화 노력에 대해 홀런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하늘의 섭리가 일부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⁷



2011년 12월, 미국 뉴저지의 무염 시태 천주 교회(Immaculate Conception Catholic Church - 성모 마리아가 잉태를 한 순간 원죄가 사해졌다고 믿음 - 옮긴이)의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어린이들과 함께 성탄절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선 콘서트는 지역 푸드뱅크에 기증할 음식을 모으기 위한 것이었다.

더 좋은 관계 만들기

사람들과 함께 봉사할 때 특정한 지침을 따른다면, 더 의미 있는 상호 교류를 할 수 있고,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도 피할 수 있다. 대도시에 살 때 나는 그 지역의 교회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부방 프로그램에 자원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쪽 책임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그 경험으로 나는 상대방의 종교에 관계없이 (혹은 종교가 없어도) 그 사람이 하는 공헌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나는 우리 교회에 관해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준다. 또한 후기 성도는 우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우리와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의 개종을 기대하지 않고서 이웃을 사랑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배고픈 자를 먹이며,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라는 예수님의 권고(마태복음 25:34~36 참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안다. 진솔하면서도 존경심이 담긴 종파 간 상호 교류를 위해서, 우리를 포함해 그 누구도 서로의 믿음을 백안시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아무 교회와도 대적하여 다투지



말고](교리와 성약 18:20) “사랑의 띠로 [자신의] 몸을 [둘러야]”(교리와 성약 88:125) 할 것이다.

후기 성도가 밀집한 지역에 사는 어느 현명한 스테이크 지도자는 또 다른 훌륭한 지침을 주었다. 그는 타 종교 사람들과 함께 봉사할 때 의사 결정 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거나 지도자 위치를 독점하여 “독차지하지” 말고, 협의하여 일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동등한 특권을 누리게”(교리와 성약 88:122) 하라고 권고했다. 타 교회와 교류해 본 경험이 많은 이 지도자는 또한 회원들에게 타 종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권했다. 그는 후기 성도들과 함께 일한 몇몇 사람들이 후기 성도는 근면하고 좋은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우정을 나누기보다는 일을 마치는 것에 더 열중한다고 느낀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지역 사회와 교육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통해 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합당한 사명 아래 단합할 때 강한 영이 임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형제애와 순수한 동기는 근면보다 일을 더 잘 진척할 수 있다.⁸

종파 간 학회에서 한 후기 성도 연사는 다른 종교 사람들과 관계를 쌓았을 때, 그들이 우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⁹ 미국의 저명한 대학교에서 물문이즘에 대한 세미나를 가르치는 비회원 학자가 있는데 그녀는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관해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부분 …… 물문교를 사이비 종교로 배우며 컸지만, 물문 친구들과 동료들은 그들이 생각해 왔던 바와 달랐기 때문이었다.”¹⁰

더 좋은 사람이 되기

함께 봉사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더 잘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도 그들에게서 배우게 되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교리와 성약 1:35)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그분은 모든 종교와 문화권에 속한 선한 사람들이 그분 자녀들의 삶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선함을 발견할 때, 예수님이 영적으로 교만하다고 꾸짖은 바리새인(마태복음 23장 참조)이나, 엘마서에서 배타적이고 교만하다고 묘사된 조렘인(엘마서

교리적인 핵심

- 하나님은 모든 종파와 문화권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지상에서의 그분의 사업을 정진시키신다.
- 선한 대의를 주창하기 위해 다른 종파 사람들과 함께 협력할 때, 우리는 우리만 독자적으로 할 때보다 더 많은 선을 실현할 수 있다.
- 종파 간에 존경심과 친절함으로 서로 교류할 때, 오해가 줄어들고 형제애와 자매애를 느낄 수 있으며, 우리 모두의 아버지께 한층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참석자들이 2013년 3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종파 간 회의에서 종교의 자유 수호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아래. 왼쪽부터:
 2010년 2월 종파 간
 음악 축제(Interfaith
 Music Tribute) 기간 중
 솔트레이크 태버넬에서
 바라트나트얌(인도
 남부의 전통춤-윙기이)
 무용수들이 공연하고 있다.
 축제를 즐기는 관객, 물론
 메시지 비디오에서 다양한
 종교의 청년들이 성적인
 순결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한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연례
 종파 간 자선 퀼트 제작
 행사(Interfaith Charity
 Quilting Bee) 참석자들이
 가난한 가족들을 위해
 퀼트를 만들고 있다.

31장 참조)과는 달리,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선한 면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가까운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궁극적으로는 이웃과 우리의 적들에게까지 사랑의 손길을 뻗칠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일본에서 미군으로 복무한 한 교회 회원은 일본 사람들에 대한 미움 때문에 힘들어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마을 주민들이 자신을 신사(神社)로 반갑게 맞이했던 때를 그는 이렇게 표현했다. “그들의 영혼이 제 영혼에 감동을 줬고 그들을 바라보는 제 감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움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 저는 그 신사에서 일어난 일들과 그곳 사람들에 대한 제 감정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 생각했습니다.”¹¹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로 따뜻하게 맞이할 때 그들 또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브리검 영 대학교 졸업생인 한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는 후기 성도 학생에 대해 자신이 처음에 품었던 경계심을 기사로

썼다. 하지만 의미 있는 우정을 쌓고 난 후, 그녀는 이와 같이 인정하게 되었다. “후기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류와 가까운 분임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함만을 기억하려 했지 그분과 내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는 간과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깨달음은 내게 큰 영향을 미쳤다.”¹²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전한 연설에서 홀랜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 관해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새로운 통찰은 늘 기존의 관점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의 세계관을 얼마간 재고, 재정리, 재구성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¹³ 타 종교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서 나는 종종 서로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교리적인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차이를 구별하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주는 유덕하고 사랑할 만한 모든 것을 인정한다. 정말 그러한 노력은 때로 위험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 나의 패러다임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나는 피상적인 문화적 전통을 벗어던지고 복음의





2012년 2월, 솔트레이크 종파 간 원탁회의(Salt Lake Interfaith Roundtable) 의장인 알렌 바흐만이 솔트레이크 태버네클에서 연설하고 있다.



세 명의 후기 성도 여성이 미국 워싱턴 스포캔에서 열린 다문화 순회 만찬 모임인 종교 연회(Faith Feast)에 참석했다. 그들과 다른 참석자들은 지역 회교 사원, 시크교 예배당, 장로교 교회를 방문했다.

핵심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갔다.

몇몇 후기 성도들은 내 목사 친구를 초청해 “종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부탁했고, 그녀는 참석자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이 줬음을 느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녀는 나를 포함해 몇몇 후기 성도들을 초청해 똑같은 주제로 다른 신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부탁했다. 모임 후, 그 신도들은 내게로 몰려와서 말을 걸고, 안아 주었으며,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눈물을 흘렸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홀런드 장로님의 다음 결론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우리가 사람들의 피부색, 인종, 사회 계층, 교회나 회당이나 사원 너머, 또는 신조와 신념을 담은 선언서 너머를 바라볼 때, 또한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즉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려고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뭔가 훌륭하고 값진 일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인도되는 것입니다.”¹⁴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주

1. Dieter F. Uchtdorf, Marjorie Cortez, “Catholic Community Services honors Uchtdorfs, Eccles as humanitarians of the year,” Nov. 7, 2012, deseretnews.com.
2. Quentin L. Cook, “Partnering with Our Friends from Other Faiths,” Aug. 9, 2010, patheos.com 참조.
3. Orson F. Whitney, Conference Report, Apr. 1928, 59.
4. Thomas S. Monson, “The Mormon Ethic of Civility,” Oct. 16, 2009.
5. 제프리 알 홀런드,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함께 일어서며”, 리아호나, 2012년 8월호, 24~26쪽 참조.
6. Joseph Walker, “Evangelical leader says LDS Church is not a cult,” Oct. 10, 2011, deseretnews.com.
7. 제프리 알 홀런드,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함께 일어서며”, 리아호나, 2012년 8월호, 24쪽.
8. Michael A. Neider, “The Voice of the People,” *Ensign*, Oct. 2012, 38-40 참조.
9. Blair D. Hodges, “Mormons, Methodists meet to consider similarities, compare cultures, theology, music,” Feb. 25, 2012, deseretnews.com 참조.
10. Joseph Walker, “University of Virginia Chair in Mormon studies named for Richard L. Bushman,” Oct. 12, 2012, deseretnews.com.
11. Ferron A. Olson, “Forgiveness at Wakayama,” *Ensign*, Dec. 2011, 57.
12. Sarah Taylor, “An Evangelical Student’s Experience at BYU,” *Meridian Magazine*, ldsomag.com.
13. 제프리 알 홀런드,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함께 일어서며”, 리아호나, 2012년 8월호, 29쪽.
14. 제프리 알 홀런드,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함께 일어서며”, 리아호나, 2012년 8월호, 29쪽.

준주스에서 친구로

장년 선교사의 작은 봉사는 오래도록 강한 인상을 남겼다.

데이비드 덕슨
교회 잡지

나 무에 준주스(mzungu:스와힐리어로 외국인이라는 뜻-움긴이)가 올라갔네? 준주스가 나무 위에서 뭘 하는 거지? 나뭇가지를 그토록 빨리 쳐내는 저 도구는 과연 뭘까? 외국인(mzungu)을 바라보는 우간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든 의문들이다. 그 외국인은 거대한 그늘을 드리운 나무에서 죽은 가지를 쳐내기 위해 배터리로 움직이는 왕복 톱을 쓰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그 도구가 신기하기만 했다. 많은 사람이 그 같은 도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더 놀라웠던 것은 그 준주스(mzungu)였다. 미국 유타 출신인 장년 선교사 로널드 해리스 장로는 높은 나뭇가지 위에서 죽은 가지를 쳐내고 있었다.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그 외국인이 자기네 마을에서 나뭇가지를 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워했다.

결국 해리스 장로의 작은 봉사로, 우리 교회든 교회 회원이든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

고드프리를 알아가다

로널드 해리스 장로와 제니 해리스 자매는 우간다 캄팔라 선교부에서 23개월에 걸쳐 봉사했다. 간호사인 해리스 자매는 선교사들의 의료 고문으로 부름받았다. 우주의 거의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은퇴한 건설 감독관인 해리스 장로는 교회 시설과 선교부 차량을 관리했다.

우간다에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해리스 부부는 집안일을 돌보도록 그 지역의 교회 회원인 메리를 고용했다.

메리가 침례를 받은 것은 3년 전이었다. 해리스 자매는 “점점 메리를 사랑하게 되었어요.”라고 말한다. “메리는 우리에게 우간다 방식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부부가 메리를 알아갈수록 그들과 메리의 우정도 깊어져 갔다. 그들은 곧 메리의 남편인 고드프리가 착한 사람이긴



하지만 교회 회원들, 특히 선교사들과 거리를 두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리스 자매는 “고드프리가 집에 선교사들을 들이려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메리는 여전히 남편이 선교사들과 만나기를 바랐다.

해리스 부부는 메리의 초대로 잠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해리스 자매는 말한다. “우리는 고드프리에게 메리는 지금 우리의 절친한 친구이며, 우리는 그녀의 가족을 더 알고 싶다고 말했어요.” 고드프리는 해리스 부부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지인 이상으로 더 알아보려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해리스 장로가 전동 공구를 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봉사 행위를 했을 때 달라졌다.

전환점

고드프리나 메리의 집은 죽은 나뭇가지가 무성한 키 큰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마구 뽑은 가지들은 위험천만하게 지붕 위까지 드리워져 있었다.

해리스 장로는 곧장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4시간 동안 나무 꼭대기 위에서 지름이 25센티미터 가량 되는 가지들을 쳐냈다. 그 일은 분명 진작 했어야 했던 일이었다. 해리스 장로는 “저는 지상에서 6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죠.”라고 말한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고드프리 역시 깜짝 놀랐다. 해리스 자매는 “그는 우리에게 매우 감사해했어요.”라고 말한다. 가지치기는 단순한 일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해리스 자매는



말한다. “우간다 사람들은 병원 치료를 받을 만한 돈이 없어요.” 누군가 나무에서 떨어져 팔이나 다리가 부러져도 저절로 아물 때까지 견뎌야 한다는 뜻이다.

땅바닥에 수북이 쌓인 나뭇가지는 소중한 우정을 쌓는 기반이 되었다. 해리스 장로는 “고드프리가 그때부터 나와서 우리를 맞아 주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고드프리와 메리는 또한 다른 교회 회원들의 방문도 환영하기 시작했다.

나일 강을 건너다

여러 달이 지나면서 해리스 장로 부부는 고드프리와 메리와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 우정은 해리스 부부의 선교 사업 기간이 반 정도 지난 시점에 들이닥친, 예상치 못한 비극이 일어났을 때 그들에게 힘과 도움이 되었다. 그들은 아들 브래드가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로 사망했다는 비보를 듣게 되었다.

메리와 고드프리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소중한 친구들 곁에 있기 위해 위험천만한 길을 떠났다.

우간다에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거의 없다. 따라서 걷거나 택시를 타야 했다. 가장 흔한 택시는 *보다보다(boda boda)*라고 부르는 오토바이였는데 종종 최대 6명까지도 탄다.

“어둠 속에서 *보다보다(boda boda)*를 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해리스 자매는 설명한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보다보다(boda boda)*를 타고 나일 강을 건넜어요.”

고드프리와 메리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모사이사야 18:9)하기 위해 한밤중에 큰 돈을 써 가며 위험한 길을 달려왔다. 그날 저녁, 공훈과 사랑이 해리스 부부에게 찾아왔다. 봉사를 한 사람들은 바로 메리와 고드프리였다. 해리스 자매는 “정말 놀라웠어요.”라고 말한다. 메리는 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제의했다. 고드프리는 망설이지 않고 참여했다.

해리스 장로 부부는 아들 브래드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로 떠났다. 그 후 그들은 돌아와서 우간다에서 선교 사업을 마쳤다. 이제 로널드 해리스와 제넷 해리스는 고향 유타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메리와 고드프리 부부와 자주 연락을 하며 지낸다.

봉사는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비이기적인 봉사가 이기적인 노력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권능은 그분의 목적을 이룹니다.”(“봉사하려는 마음과 합당성”,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68쪽) ■





밝은 희망의 대륙

아프리카



리차드 엠 롬니
교회 잡지

아프리카와
마다가스카르 후기
성도들의 신앙과
순종은 전 세계 교회
회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라 이베리아와 가나 방문을 포함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시에라리온 프리타운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프리카 백성들을 사랑하는 일은 정말 쉽습니다.”¹

그는 복음에 대한 사랑을 타고난 아프리카 후기 성도들의 신앙과 순종이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침례 성약과 충실한 복음 공부는 많은
축복의 문을 열어 준다.



홀런드 장로는 “복음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이 백성들이 그 복음을 통해 어떤 일들을 수행했는지, 복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고, 또 그들이 충실하게 십일조를 바치고 봉사하며, 제 개인적으로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하는 성전에 가는 모습,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아들딸을 선교 사업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명받는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바로 이것이 이들의 충실함을 제대로 웅변해 주는 증거입니다.”²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홀런드 장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하면(남아프리카에는 1970년에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음) 아프리카에 교회가 들어선 지는 30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이곳의 교회는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세워졌[으며]”, “아프리카는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과 놀라운 일, 회복의 기적이 말 그대로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³

그는 교회 제15대 회장인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과 함께 가나 아크라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힝클리 회장의 발표를 들었던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일어나 환호를 지르고, 서로 얼싸안은 채 눈물을 흘리면서 춤을 추기도 하고 소리 내어 울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바로 그 영이 아직도 그대로 머무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아프리카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바로 그 영 덕분에 이 백성들은 복음 안에서 꺼지지 않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는 가진 것이 거의 없지만, 복음을 접했을 때 그것을 품 안에 끌어안았습니다. ……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전과 같습니다.”⁴

성취된 예언

임무를 띠고 아프리카를 방문했던 선지자와 사도들은 아프리카를 주님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곳이라고 말해 왔다.

모잠비크와 나이지리아 교회 회원들을 만나 본 십이사도 정원회 리차드 지스코트 장로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친절하고 인내심이 강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재정적으로 뭔가를 할 만한 충분한 수입이나 물자가 없기에 순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충당합니다. 그들은 성신이 어떤 일을 하라고 속삭일 때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라도 걷습니다.”⁵

1999년에 스코트 장로의 말씀대로 그가 복음 전파를 위해 모잠비크를 헌납했을 때만 해도 모잠비크의 회원 수는 40명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곳은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선교부의 관할 지역이었다. 2011년 1월,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 모잠비크 교회 회원 수는 5,000명 이상으로 늘어 전역에 지방부 두 곳과 열아홉 개의 지부가 조직되어 있었다. 모잠비크는 또한 모잠비크 마푸투 선교부의 본부이며 이 선교부는 앙골라까지 관할한다.⁶

걸음마 단계지만 성장하는 교회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케냐 방문 중에 십이사도 정원회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서 교회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⁷ “우리는 주님께서 이 놀라운 아프리카 대륙에서 진리와 복음의 빛, 구원과 승영의 의식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⁸ 그는 특히나 아프리카에서 지역 교회 지도자들의 역량에 감탄한다고 말했다. “이 지역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주님을 위한 봉사를 하며 주님께 시간과 재능을 바치고 있습니다.”⁹

넬슨 장로는 교회의 미래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들의 신앙이 역정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스라엘의 성약의 자녀들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인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와 만날 준비를 하여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그분들과 같이 살려고 합니다.”¹⁰ 넬슨 장로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다. “이분들에게는 대단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신앙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은 사람들을 참으로 강하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¹¹





언제나 구주를 기억하려고 애쓰는 회원들은
성찬을 취함으로써 강해지고 새롭게 된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한 인터뷰에서 벨슨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후기 성도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곳 나이로비에는 우리의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테이크 대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천 명 이상이 모였고, [모두들 매우] 경건했으며, 아름다운 합창단과 훌륭한 스테이크 회장단, 축복사님이 단상에 계십니다. 이런 발전을 목격하며 느낀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¹²

역경에도 불구하고

홀런드 장로는 역경 앞에서도 아프리카에서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했다. 그는 한 예로 다음과 같은 점을 언급했다. “코트디부아르 [아이보리코스트]에서 격한 내전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후기 성도들은 계속 성전으로 오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 헌신이었죠. 경이로울 뿐입니다.”¹³

홀런드 장로는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떤 면에서는 최근에 전쟁의 참화를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매우 극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삶이 바람직하지 않은 삶인지를 확인했으며, 선교사와 회원들의 간증에 따라 그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극도 축복으로

돌리실 수 있으며, 백성들은 정치적 방황과 내전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나고 있습니다.”¹⁴

또한 아프리카 내 다른 나라인 짐바브웨에서 교회가 성장한 예도 이야기했는데, 짐바브웨 또한 최근 수년 동안 힘든 시기를 겪었던 곳이다. “그런 속에서도 교회는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는 성장하여, 스테이크도, 선교부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전역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¹⁵

복음이 전파되면서

홀런드 장로는 아프리카에서 교회가 성공한 비결 가운데 하나로 “우리는 이목을 끄는 정치 사회적인 사안들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정의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기회와 평등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하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그러한 철학과 축복과 빛을 잃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며, 삶에 축복이 온다는 사실은 아프리카뿐 아니라 어디에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¹⁶

주님의 약속

홀런드 장로는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마태복음 20:16)라는 구주의 말씀을 인용했다.

“어찌 보면 아프리카에는 복음이 늦게 들어온 것 같지만, 확신컨대, 이 일은 적어도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져

왔다고 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부와 선교사 및 신권 축복 등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대륙이 워낙 크다 보니,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멍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성장 추세를 보면 주님의 약속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이 큽니다. 아프리카의 후기 성도들은 신앙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 속에 구체화시키라는 과제를 풀어내고 있습니다.”¹⁷ ■

주

1. 제프리 알 홀런드, “신앙으로 일어서는 아프리카”, www.lds.org/prophets-and-apostles/unto-all-the-world/emerging-with-faith-in-africa
2. 제프리 알 홀런드, “신앙으로 일어서는 아프리카”
3. 제프리 알 홀런드, “신앙으로 일어서는 아프리카”
4. 제프리 알 홀런드, “신앙으로 일어서는 아프리카”
5. Richard G. Scott, “Mormons in Africa: A Bright Land of Hope”, mormonnewsroom.org/article/mormons-africa-bright-land-hope.
6. “Jesus Christ Lives’ Elder Scott Testifies in Mozambique” 참조.
7. Russell M. Nelson, video “Learn of the Savior, Saints in Madagascar and Malawi Are Told”, lds.org/prophets-and-apostles/unto-all-the-world/jesus-christ-lives-elder-scott-testifies-in-mozambique.
8. Russell M. Nelson, “Elder Nelson Completes Trip to Africa in Kenya”, lds.org/church/news/elder-nelson-completes-trip-to-africa-in-kenya
9. Russell M. Nelson, video Heather Whittle Wrigley, “Elder Nelson Visits Madagascar, Dedicates Malawi”, Oct. 28, 2011, lds.org/church/news/elder-nelson-visits-madagascar-dedicates-malawi.
10. Russell M. Nelson, video “Learn of the Savior, Saints in Madagascar and Malawi Are Told.”
11. Russell M. Nelson, video “Elder Nelson Visits Madagascar, Dedicates Malawi.”
12. Russell M. Nelson, video “Family Success Comes from Following the Savior”, lds.org/prophets-and-apostles/unto-all-the-world/family-success-comes-from-following-the-savior.
13. 제프리 알 홀런드, “신앙으로 일어서는 아프리카”
14. 제프리 알 홀런드, “신앙으로 일어서는 아프리카”
15. 제프리 알 홀런드, “신앙으로 일어서는 아프리카”
16. 제프리 알 홀런드, “신앙으로 일어서는 아프리카”
17. 제프리 알 홀런드, “신앙으로 일어서는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남동 및 서부 지역*

회원: 381,417명
 스테이크: 70개
 와드: 508개
 선교부: 22개
 지방부: 60개
 지부: 646개
 본부: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가나 아크라

*2013년 4월 현재

성전

운영 중인 곳
 가나 아크라, 2005년 8월 7일 헌납
 나이지리아 아바, 2004년 1월 11일 헌납
 요하네스버그, 1985년 8월 24~25일 헌납
 건축 계획이 발표된 곳
 남아프리카 더반
 콩고 민주공화국 킨샤사

가장 위대한 기적

칭 명한 9월의 어느 날, 막내딸 에리카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급히 병원에 옮겨져 여러 시간 응급 수술을 했지만, 비보가 전해졌다. 아름답고 쾌활한 열일곱 살의 우리 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이후 몇 개월간 우리는 고통 속에 지내야 했다. 에리카의 생일과 추수감사절은 간신히 넘어갔지만, 어느덧 에리카 없이 보내야 하는 첫 번째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 없이는 이 명절을 지내기가 힘들 거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 어떤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했다.

역장이 무너지는 슬픔과 좌절감을 느끼며, 함께 모여 행복하게 성탄을 축하하는 다른 가족들에게 질투를 느꼈다. 나는 고통스럽게 고민했다. “왜 하필 우리 가족이지? 다들 이야기하는 그런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은 거지?”

좌절감에 휩싸여 있을 때, 와드에서 했던 “베들레헴의 성탄절”이란 활동이 떠올랐다. 와드 회원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분장을 했다. 당시 네 살이었던 에리카는 물려받은, 하얗고 긴 드레스를 입고서 머리에는 스카프를 둘러맸었다. 건초가 가득한 모형 마구간과 구유에서 재현된 예수님 탄생 장면으로 그날 밤은 절정에 다달았다. 갓난 아기를 둔 젊은 부부가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님 역을 맡았다.

예수 탄생 장면 주위로 모였을 때, 에리카가 보이지 않았다. 예수 탄생 장면 가까이에서 에리카의 흰색 드레스

자락을 보기 전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드레스 자락을 본 후, 나의 공포는 이제 에리카의 안전을 염려하던 두려움에서 그 애가 이 장면을 망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아이에게 소리를 칠 뻔했지만, 나는 잠시 멈추었고, 에리카가 구유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에리카는 조용히 마리아 옆에 무릎을 꿇고 마치 허락을 구하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런 후 에리카는 손을 뻗어 잠든 아기를 살포시 어루만졌다. 그 모습을 지켜본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도 소리없이 아기 옆에 무릎을 꿇는 에리카를 지켜보았다. 사람들은 아기를 그리스도처럼 여기는 에리카의 마음을 깨달았고, 그들 모두에게도 부드러운 감정이 스며들었다.

슬픔의 한복판에 있었음에도, 그

사 람들은 아기를 그리스도처럼 여기는 에리카의 마음을 깨달았고, 그들 모두에게도 부드러운 감정이 스며들었다.

성탄절의 추억과 어린 딸의 헌신을 떠올리자 나는 평화와 위안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머릿속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의문들로 가득했다. 에리카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부활과 십자가형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는 마리아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었다. 그녀는 새로 태어난 아들을 사랑했고, 나중에는 아들이 고통을 겪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끔찍한 고통과 고뇌를 견뎠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마리아는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성탄절에 우리는 구주께서 지상에서 삶을 시작하신 일을 축하한다. 하지만 나는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동시에 그분의 고통, 죽음, 부활, 속죄를 함께 생각할 것이다.

구주께서 죽음을 고리를 끊으셨기에 에리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것이 바로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

엘렌 벨, 미국 유타



선생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

나는 성탄절 정신을 느낄 수 없었다. 그 해 12월은 고등학교에서 보내는 마지막 해이자 대학 입학 원서를 넣고 마지막 월계반 활동을 해야 할 때였다. 대학 입학 원서에 기재할 거라도 만들고, 또 월계반 활동도 마칠 겸 해서 나는 봉사 활동을 하고 싶었다. 운이 좋게도, 학생회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내 친구 제시카와 나에게 지역 자선 단체를 위한 장난감 기부 행사를 준비해 보라고 제의하셨다.

나는 대부분의 일을 행사 위원회에 위임했다. 나는 기부한 장난감 수를 표시할 커다란 온도계 모양의 게시판을 만들어 달라고 위원회에 요청했다. 우리는 그 정도면 충분히 홍보를 한 셈이라고 여겼고, 점심시간 때마다 기부 물품을 모으러 다녔다. 하지만 학생들은 거의 기부하지 않았으며, 게시판 온도계는 여전히 낮은 온도에 멈춰 있었다.

이상하게도 지도 교사 선생님은 장난감 몇 개를 따로 챙겨 두기 시작하셨다. 제시카와 내가 왜 그러시는지 선생님께 여쭙자,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 중 한 분이 최근에 암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다. 암 치료를 하면서 학교 일을 병행할 수는 없었기에 그 선생님은 학교를 그만두셨다. 성탄절이 다가왔지만, 의료비 청구서가 쌓여 있어서 그분의 가족은 성탄절을 즐길 여유가 없어졌다. 지도 교사 선생님은 그 가족을 위해 따로 챙겨 둔 선물 몇 개를 포장해 달라고 하셨다.

마음이 뭉클했다. 나는 봉사 활동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만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 왔다. 나는 장난감 기부 수 목표표를 세 배로 올리고, 그 선생님 가족을 위해 돈을 모으기로 했다.

제시카와 나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우리의 목적을 이야기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교사, 교직원, 학생들은 그 가족을 돕기 위해 장난감과 돈을 기부했다. 곧 장난감 기부 수량은 목표량을 초과했고, 자선 단체에서도 매우 놀라워했다. 또 우리는 그 가족을 위해 1,000달러 이상을 모았다.

우리가 모으고 구매한 선물들을 정성스럽게 포장하면서, 나는 우리가 전할 선물만큼 훌륭한, 봉사에 대한 간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도 모르게 현관에 선물을 놓아두고, 그 가족이 선물을 발견하는

우리가 모으고 구매한 선물들을 정성스럽게 포장하면서, 나는 우리가 전할 선물만큼 훌륭한, 봉사에 대한 간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습을 몰래 숨어 지켜보았을 때 느꼈던 짜릿함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몇 달 후, 제시카와 나는 봉사 활동에 대해 세미나에서 가르치라는 부탁을 받았다. 우리는 그 선생님의 성함은 밝히지 않은 채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설명했다. 한 소녀가 손을 들고 일어섰다. 그녀는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 선생님은 바로 그녀의 삼촌이었고, 소녀는 우리의 봉사가 그분께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를 말해 주었다. 소녀는 그 일이 삼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했다.

그해 성탄절에 우리는 진심 어린 봉사를 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게 되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

린지 레빗, 미국 네바다



난 할 수 있어요!

성 탄절 무렵, 그날 밤 땅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수개월 동안 동반자와 나는 추운 독일 날씨를 용감하게 견디며 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몰몬경을 나누어 주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 많은 독일인들이 미국인을 경계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는 잉게보르크 비엔물러의 침례식이 있었다. 미국 공군 기지로 가는 장거리 버스 안에서 그녀는 말이 없었다. 나는 그녀의 고뇌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버스에서 내릴 때가 가까워오자 잉게보르크는 우리 쪽으로 몸을 돌려

“저한테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 남편은 전쟁에서 연합군에게 목숨을 잃었고 우리 가족들도 공습으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다리를 만지며 말했다. “폭탄 파편이 날아와 박힌 거예요. 다리는 절대 낫지 않을 거예요. 제가 거기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조용히 앉아 그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했다. 잉게보르크는 꼼짝하지 않았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나는 그녀가 겁에 질려 돌아서지 않기만을 바라며 기도했다.

그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아버지는 회복이 참되다는 간증을 제게 주셨어요. 저는 몰몬경이 진리라는 걸 알아요. 난 할 수 있어요! 옛킨 장로님. 나 좀 견게 도와줘요.”

우리는 정문까지 꽤 걸었으며 보초병들을 지날 무렵 잉게보르크는 숨이 차 헐떡거렸다. 우리는 흰색 옷으로 갈아입고 기지에 있는 수영장을 찾았다. 성스럽게 변한 수영장에는 평화가 감돌았다. 물속으로 들어가 교회 회원으로서 침례 받은 후, 잉게보르크의 표정에 서린 고뇌는 기쁨으로 바뀌었다.

오는 길에 그녀는 “장로님들이 제게 몰몬경을 준 그날 저녁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밤새 읽다 보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권유하는 모사이야서 18장까지 읽게 되었죠. ‘보라, 여기에 몰몬의 물이 있으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 원하며 침례 받음에 너희가 꺼릴 것이 무엇이 있느냐?’ (모사이야서 18:8, 10)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 구절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을 꾸었죠. 몰몬의 물 같은 아름다운 물웅덩이 옆에 서 있었어요. 웅덩이 맞은편에는 하얀 옷을 입고 선 사람들이 보였는데 바로 제 가족들이었어요! 전쟁 중에 사망한 남편은 웃으며 제게 침례 받으라고 손짓하더군요.”

그날 밤 비엔물러 자매는 뷔르츠부르크 지부 회원이 되었으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교회에 들어온 많은 독일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

로이 옛킨, 미국 캘리포니아

잉게보르크는 우리 쪽으로 몸을 돌려 “저한테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라고 말했다.



우리도 선물 주세요

지 방부 회장단에 있을 때 나는 지방부 회원들이 장난감을 기부하여 콜롬비아 소아차에 사는 빈민가 어린이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활동을 이끈 적이 있다. 모든 회원이 성심을 다해 그 활동에 참여했다. 기부한 선물이 전부 새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 상태가 매우 양호했다.

소아차로 가는 버스에 선물을 다 싣자 한 어린 소녀가 내게 무척 닳고 흠집이

난 플라스틱 공을 갖고 왔다. 나는 공을 받기는 했지만 과연 누가 그런 낡은 공을 기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별 가치가 없는 공이라고 생각한 나는 자리 밑으로 공을 던져버렸다.

소아차에 도착하자 청소년들이 성탄절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성탄절 모자와 함께 그들의 노랫소리는 많은 어린이의 관심을 끌었다. 선물을 나눠 주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도 불러들였다. 곧 갖고 온 모든 선물을 다 나눠 주었다.

떠날 때가 되어 여덟 살쯤 되어

나는 그 형이 동생에게 축복을 준 것처럼 나도 기꺼이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바랐다.

보이는 소년이 남동생의 손을 잡고 우리 쪽으로 달려왔다. 우리 앞으로 달려온 뒤, 형인 아이가 “우리도 선물 주세요.”라고 말했다. 그 아이의 순수함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선물을 다 나눠 줬다고 말했다. 그 아이는 “저는 선물이 없어도 되지만 제 동생 선물은 꼭 있어야 해요.”라고 대답했다.

그때 나는 자리 밑에 던져버린 공이 생각났다. 나는 선물이 하나 있긴 하지만 초라한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상관없어요.” 소년이 답했다. “있다는 게 중요해요.”

나는 버스로 가서 공을 찾았다. 공을 주자 동생인 아이는 매우 기뻐했다. 아이는 고마움에 팔짝팔짝 뛰면서 “야, 공이다! 아기 예수님께 공을 선물로 달라고 부탁했거든요.”라고 말했다. 그 소중한 선물을 들고 돌아가는 길에도 어린 소년은 행복해서 계속 춤을 쳤다.

나는 평화와 감사함을 느끼면서 조용히 그곳에 서서 울었다. 그 형 아이가 동생 아이에게 보여 준 염려와 이타적인 마음에 감동했다. 나는 그 형이 동생에게 축복을 준 것처럼 나도 기꺼이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바랐다.

그 형제가 행복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우리에게 대한 구주의 사랑을 떠올렸다. 그분은 성탄절에 그냥 공 하나를 선물로 달라고 했던 산기슭에 사는 어린 소년도 잊지 않으셨다. ■

월터 에밀리오 포사다 로드리게스, 콜롬비아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탄절의 약속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것처럼, 이 성탄절을 통해 구주를 따르고 그분의 뜻을 행하겠다는 우리의 성약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 주의 삶, 속죄,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주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구주의 탄생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요한복음 18:37)

성탄절 기간이 시작될 때, 구주에 대한 경전상의 예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언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주의 삶과 사명, 우리 각자에게 주님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과 관련된 목적과 약속을 알려 주는 심오한 말씀들입니다.

구주의 탄생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의 탄생은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약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구원의 계획에서 주님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시기 약 1,400년 전에도 모세가 똑같은 놀라운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또 구주가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는 이사야가 그분의 탄생과 삶, 죽음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이사야 7:14)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이사야 9:6)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이사야 53:3~5, 7~9).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얼마 후에 선지자 리하이는 놀라운 꿈을 꿔고 가족들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가르쳤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의 부친이 예루살렘을 떠나신 때로부터 육백 년에, 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한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라 하셨으니, 곧 메시아 즉 달리 말하자면 세상의

구주시라.”(니파이전서 10:4)

리하이는 또한 세상의 구속주가 탄생하실 일에 대해 수많은 선지자가 증거했음을 알려 주었습니다.(니파이전서 10:5 참조)

성탄절의 약속

누가복음에는 구주가 태어나시기 전에 그분의 어머니가 서둘러 사촌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누가복음 1:41~42).

엘리사벳에게 했듯, 성신은 우리에게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합니다. 구주께서는 그분의 아버지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주에 대해 니파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에 내가 보고 그 처녀를 다시 보았더니 한 어린아이를 팔에 안고 있더라.

또 천사가 내게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참으로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을 보라!” (니파이전서 11:20~21).

열두 살 때, 구주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구주는 근심하는 부모님에게 자신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누가복음 2:42~49 참조)

주님이 지상 사명을 완수하려 나아가심으로써, 그 아버지의 일이

매주 우리는 성찬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삶에서 구주의 탄생이 준 약속을 새롭게 합니다.

성취되었습니다. 구주는 그 사명의 성취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왔으며 내 백성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나의 음에 관한 경전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나 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었나니, 또 그와 같이 나의 이름을 믿게 될 모든 자에게도 내가 그리하여 줄 것은, 보라, 나로 말미암아 구속이 이르며 내 안에서 모세의 율법이 이루어짐이라.”(제3니파이 9:16~17)

우리가 그분의 아들딸이 될 수 있다는 그 약속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여 순종할 때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선물받을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나의 백성을 구속하도록 예비된 자니라.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 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생명을 얻되 영원히 얻으리니, 곧 나의 이름을 믿을 자들이라. 그들이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이 되리라.”(이더서 3:14)

성탄절의 의미

성탄절은 우리의 은사를 나누고 사람들을 강화하며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우리의 몫을 다하는 때입니다. 성탄절은 또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구주에 대한 우리의 간증을 나누는 때입니다.

우리의 간증을 나눌 한 가지 방법은 집에 예수님의 탄생 조각품을 두어 주님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더 맨션(The Mansion)*의 존 웨이트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존 웨이트먼은 성공한 사람으로서 자애로움으로 인기와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어느 저녁, 자신의 관대함을 찬양하는 신문 기사를 오려 둔 것을 살펴본 그는 성경을 집어 들었습니다. 곧 그는 구주의 말씀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마태복음 6:19)

꿈에서 존은 “하늘 도시”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으며, 그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이 살 집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지기는 중고 자재로 지은 조그만 오두막집 앞에서 멈춘 후 존에게 “여기가 당신 집이요.”라고 말했습니다.

존은 자신이 대중을 위해 한 많은 공헌을 열거하며 항의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이미 지상에서 정확히 기록되어 당신의 명성에 더해지지 않았겠소?” 문지기가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일들에 대한 상을 이미 받았소. 상을 두 번이나 받겠다는 거요?”¹

이번 성탄절에 우리 각자가 익명으로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성취

매주 우리는 성찬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삶에서 구주의 탄생이 준 약속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을 항상 기억하겠다는 약속과 순종의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교리와 성약의 기록처럼 복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곧 예수는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그리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그리고 세상을 성결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모든 불의한 것에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들어오셨나니, ……

모든 자가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교리와 성약 76:41~42)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것처럼 이 성탄절을 통해 구주를 따르고 그분의 뜻을 행하겠다는 우리의 성약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구주가 탄생하시기 125년 전에 기록된, 베냐민 왕의 백성들이 한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오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적용하사 우리로 우리의 죄 사하심을 받게 하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니이다 하였더라.”(모사이야서 4:2)

구주께서 절정의 시기에 오셨으며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재림 전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회복된 그분의 교회, 우리가 후기 성도로서 열심히 관여하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기이하고도 가장 기이한 일”(니파이후서 25:17)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

주
1. Henry Van Dyke, “The Mansion,” *Inspirational Classics for Latter-day Saints*, comp. Jack M. Lyon (2000), 54–57, 62–63.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과거 시대의 위대한 남성과 여성들은 자신들이 성공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공하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계속 나아가고, 증거하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에게 주어진 복음의 가장 위대한 경륜의 시대, 그 필멸의 무대 위에 올라 있으며, 우리는 그 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남긴 이 글귀를 사랑합니다. 지난 시대의 선지자들과 제사들과 열왕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 환희에 찬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거룩하고 환희에 찬 기대를 걸고 우리 시대를 노래하고 기록하고 예언하였습니다.”¹ 윌포드 우드럽 회장님도 비슷하게 확인하셨음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과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여러 차례 언급된 위대한 경륜의 시대입니다.”²

이전의 여러 경륜의 시대와 당대 지도자들, 가족들, 사람들에게 관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과 그들이 직면했던 파괴적인 환경을 자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지독히 어려운 시대를 살았고, 대부분 자신이 속한 경륜의 시대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로 복음 회복이 이 후기에 이뤄져야 했던 중요한 이유는 복음이 그 이전 시대에는 존속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 회복은 이 마지막 승리의 시대에 추진되어야 했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경륜의 시대

요컨대, 유구한 시간 동안 있었던 모든 경륜의 시대는 결국 이런저런 유형의 배도와 파괴를 겪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시대의 위대한 남성과 여성들은 자신들이 성공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공하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계속 나아가고, 증거하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자신의 시대가 아닌 여러분의 시대를 바라보며, 복음이 세상에 가득차고 승리하는 것을 보겠다는 결의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전 세계에서 모인 참으로 아름다운 수십만 청년 회중을 생각하며 용기와 희망을 얻었으리라 믿습니다.

모로나이는 이 마지막 날에 그의 기록을 받게 될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러한 것이 너희 중에 나아올 그 날에 반드시 속히 이를 일에 관하여 크고 기이한 일들을 주께서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마치 너희가 지금 있는 것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아직은 너희가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내게 보이신지라, 내가 너희의 행함을 아노라.”(몰몬서 8:34~35)

모든 선지자와 초기 사도들은 어떻게든 우리 시대에 관한 시현을 보았을 것이며, 그렇기에 자신의 시대가 미미한 성공에 그쳤을지라도 용기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 시대에 살았던 형제들은 우리에게 관해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 니파이, 야렛의 동생과 같은 선지자들은 시현으로 후기와 관련하여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일부 시현에는 그다지 유쾌하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실패하지 않을 경륜의 시대가 마침내 도래할 것을 알았기에 이전의 모든 세대는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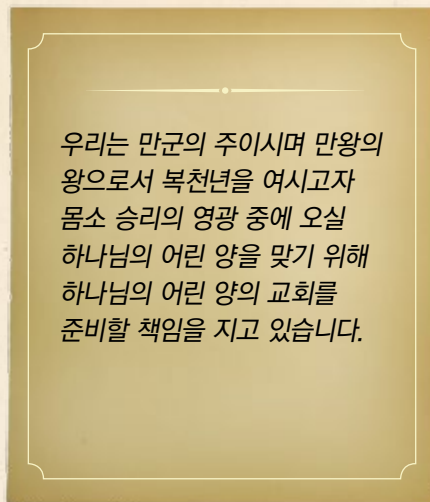
자신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 시대로부터 “거룩하고 환희에 찬 기대”를 느꼈기에 그들은 승리를 노래하고 예언했습니다. 총괄해 보자면, 우리 시대는 선지자들이 태초부터 고대해 온 그 날이며, 앞선 시대의 그 형제들이 저곳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들이 온전한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할 가능성은 매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충실함과 우리의 승리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의 진장에 나서는 것은 엘마와 아빈아다이의 호소와 베드로와 바울의 희생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발상을 정말 좋아합니다. 역사라는 드라마에서 그러한 배역을 맡은 것이 설레지 않는다면, 그 무엇이 설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 위해 그분의 교회를 준비하십시오

경륜의 시대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또 다른 요소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륜의 시대는 모든 시대 가운데서도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경륜의 시대이며, 우리 시대에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끝이 나고 완수될 것이기에, 이 시대 교회 회원의 어깨 위에는 이전 시대의 교회 회원 어깨 위에 놓였던 것과는 다르게 특별하고 구체적인 책임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이사야, 에스겔 시대의 교회,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신약 시대 교회와는 다르게, 우리는 만군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으로서 복천년을 여시고자 몸소 승리의 영광 중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맞이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를 준비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경륜의 시대도 그런 의무를 맡은 적이 없습니다.

경전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신량이 올 것을 대비하여 신부를 준비시키며 결혼



잔치에 초대받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지명된 사람들입니다.(마태복음 25:1~12, 22:2~14, 교리와 성약 88:92,96 참조) 종합해서 말하자면, 우리 시대이든 혹은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의 시대이든, 아니면 언제가 되었던 간에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기에 합당해야 하며, 그분께 환영을 받기에 합당해야 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고 안아 주시기에 합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신성한 시간에 우리가 그분께 보여야 할 삶은 그분에게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분께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날에 대한, 권세를 이양하는 그 순간, 우리가 그분께 그분의 교회인 이 교회를 드릴 날에 대한 경외심으로, 제 삶을 예비해야 하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회 회원들의 삶을 예비하도록 도와야 하는) 의무감으로 제 마음은 충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께 받아들여지려면, 그분의 교회 회원들은 주님의 교회 회원에게 요구되는 대로 보여야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된 그분의 제자로 신속하고 쉽게 인식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이셨던 제이 르우벤 클라크(1871~1961)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지하기 어려운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³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임을 밝힐 그 위대한 마지막 시간이 왔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아십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날에 맡은 물론 행동으로도 그분을 따르는 자로 알려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지금은 후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훌륭한 후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란 말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러한 모든 것이 언제 끝날까요? 언제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영광을 입고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며, 복천년은 언제 시작될까요? 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 사건의 첫 순간이 193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첫번째



저는 마지막 날의 전장에 나서는 것은 앨마와 아빈아다이의 호소와 베드로와 바울의 희생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발상을 정말 좋아합니다. 역사는 드라마에서 그러한 배역을 맡은 것이 설레지 않는다면, 그 무엇이 설레겠습니까!



시현과 그 뒤를 이은 것들의 결과로, 우리가 전례가 없는 축복, 즉 충실하고 깨끗하게 살아 마침내 승리의 영광 중에 오실 신랑이 몸소, 정당하게 우리에게 혼인 잔치를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사랑하는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 제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간증을 남깁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과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과 슬픔이 있지만, 그분 안에는 어떠한 악이나 해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완전한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폭풍우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었으면 하는 유일한 염려는 실로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충만하게, 더 충실하게 살아 이 위대한 경륜의 시대에 마련된 모든 축복이 우리 개개인과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삶에 쏟아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 가지고 계시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직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6:34, 36; 78:17)

여러분에게 제 축복과 사랑,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진실함, 다시 말해 우리 경륜의 시대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며 그분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신랑이 왔을 때 혼인 잔치에 초대되기에 합당할 것임을 사도로서 간증합니다. ■

“*Terror, Triumph, and a Wedding Feast*”, 2004년 9월 12일, 청년 성인을 위한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 말씀에서 발췌 영어로 된 전문은 speeches.byu.edu에서 볼 수 있다.

주

1. 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4:609-10.
2. Wilford Woodruff, in James R. Clark, comp.,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6 vols. (1965-75), 3:258; 또한 고든 비 헝클리, “찬란한 아침이 밝아옴,”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83쪽 참조.
3. J. Reuben Clark Jr., *The Charted Course of the Church in Education*, rev. ed. (1994), 7 참조.

“어떻게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이 상하게 들리겠지만 유혹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것입니다. 유혹을 받지 않는다면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하지 못하게 됩니다.(교리와 성약 29:39 참조)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서 선을 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니파이후서 2:11~30 참조)

유혹을 견뎌 내는 한 가지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순종입니다. 때때로 유혹에 굴복해 버리면, 앞으로 유혹을 견뎌 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한결같이 유혹을 견뎌 낸다면, 우리는 강해져서 앞으로 유혹을 견뎌 내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견디는 힘 대부분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구주의 속죄에서 나옵니다. 구주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고자 노력을 다할 때, 구주께서는 여러분이 유혹을 견뎌 내도록 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경전에는 유혹을 이겨 내는 다른 방법이 나옵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리하여 네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 하라.”(교리와 성약 10:5)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굳게 붙들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겠고, 유혹이나 대적의 불화살도 그들을 이겨 눈멀게 하여 멸망으로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나이다”(니파이전서 15:24)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야고보서 4:7~8)

또한,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그릇된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유혹을 받으셨으나, 이에 개의치 아니하셨느니라.”(교리와 성약 20:22) 자신에게 도움이 될, 주님과 다른 많은 사람의 모범을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힘을 구하는 기도

유혹을 견뎌 내려면 먼저 의를 선택하려는 의지와 진실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미리 상황을 상상해 보고 그런 후에 의를 선택하는 것이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게 도움이 되는 또 다른 것은 기도입니다. 힘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영적인 자양분을 구하며,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을 주의깊게 선택한다면, 성신은 우리와 함께하며 경고를 주는 변함없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에스터 지(18세), 독일 니더작센



서로 지지해 주십시오

매일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자제력을 발휘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유혹을 견뎌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혹을 견뎌 내는 것은 신앙을 강화하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과 맺은 성약을 지키고자 하는 결의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친구가 있다면 서로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혹을 거절하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디모데후서 1:7)임을 기억하십시오. 유혹을 이겨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낸시 에스(19세), 멕시코 톨티틀란

믿음을 나누세요

고등학교 때 반 친구 대부분이 제게 술을 마시고 외설물을 보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구주께서 제게 바라시는 일들을 하기에 언제나 그런 것들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기억하며 제 성약을 지킵니다. 때로 친구들과 반 친구들은 제 종교에 대해 이미 알기 때문에 저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친구, 반 친구, 이웃, 가족에게 믿음과 간증을 나눈다면 주위에서 오는 유혹이 줄어든 것입니다. 복음대로 삶으로써 우리 생활에서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음을 압니다.

로메오 피(19세), 필리핀 네그로스 옥시덴탈

성신에 귀를 기울이면서

유혹이 올 때 성신이 제게 의로운 것을 선택하도록 경고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읽는 것처럼, 영이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고 성신이 올 수 없는 곳에는 가지 마십시오.

레이철 오(13세), 미국 펜실베이니아

거룩한 곳에 서십시오

형은 언제나 제게 “거룩한 곳에 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의 의미가 유혹이 적거나 심하지 않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스테이크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유혹을 견디려고만 하지 말고, 피하십시오.” 유혹을 견뎌 내야 할

때도 있겠지만, 빠져들 유혹이 없을 때 복음대로 사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아론 엘(18세), 미국 유타

언제나 결심을 해야 합니다

성신의 은사는 우리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차이를 분간하고, 또 유혹받을 때 그것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혹이란 옳은 것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알게 하는 시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유혹이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고린도전서 10:13 참조) 언제나 잘못된 길보다는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후안 티(19세),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의를 택하는 역할극

앞으로 마주하게 될 선택에 대해 사전에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기치 않게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는데, 표준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결과는 좋은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비록 이따금 거북할 때도 있지만, 저희 가족은 유혹과 마주했을 때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해야 할지 알도록

역할극을 해 보니까.

에멀린 피(14세), 미국 와이오밍

좋은 친구를 두십시오

유혹을 견뎌 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옳은 것을 택하는 좋은 친구를 두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좋은 모범을 보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좋은 친구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여러분이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순종하도록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샘 이(17세), 미국 워싱턴



신앙을 행사하기로 일찍부터 결심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 그러한 신앙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을 키우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속죄를 통해 유혹을 물리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혹을 물리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초기입니다. 회개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지금입니다. 우리 영혼의 원수들은 우리 정신에 여러 생각들을 집어넣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악한 생각에 따라 행동하기 전에, 그것들을 일찍 몰아내도록 신앙을 행사하겠다고 지금 이순간에 결심할 수 있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1회 회장단, 제1보좌, “영적인 준비: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행함”,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38, 40쪽

다음 질문

“교회 표준을 따른다고 학교에서 놀림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원할 경우)을 9월 15일까지 liahona.lds.org로 제출하거나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또는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3쪽의 주소 참조)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은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



브래들리 디 포스터
장로
칠십인

길의 끝에서 본다면

길의 끝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감 독님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감독님은 제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을 한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느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십 대였을 때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당시 감독이었고, 그는 우리가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감독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감독님이 비밀로 해 주실까?”

“어떻게 감독님을 다시 볼 수 있겠어?”

그러한 격정에 휩싸여, 회개의 길로 들어설 용기를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길을 내려다보면

하지만 그 길을 한 번 살펴봅시다. 회개의 일부 과정은 다른 과정보다 쉽습니다. 첫 단계는 인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뭔가 잘못된 것을 행할 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압니다. 성신은 우리가 그것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하며, 대개 변화를 바라는 소망은 강합니다.

그 후 단계들이 점차 어려워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백하고 죄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고백하는 것은 많이 쉬워 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영이 확인해 줄 때까지 용서를 구하고, 배상하고, 품행을 고치는 방식으로 많은 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백은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 해야만 합니다. 이 젊은이는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도움이 필요했으며, 회개의 여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길 위에서의 희망

회개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라면, 그 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은 후에 돌아켜볼 때 이러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은 속죄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자신에게로 돌이키는 사람을 강하게 해 주십니다. 엘마는 속죄의 혜택을 받으려면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앨마서 5:33~34 참조) 그 길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감독님이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그 길에는 도움이 함께할 것입니다.

출발하자마자 여러분은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감독님에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우리는 웃어야 합니다

“회개는 신성한 은사입니다. 우리는 웃는 얼굴로 회개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개는 신성한 은사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38쪽



될 것입니다. 감독님과 여러분 사이에 쌓을 수 있는 신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한 신뢰는 영원토록 지속되고, 미래에 다른 감독님들과 함께할 때에도 안도감을 느끼게 해 줄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곤경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해 줄 것입니다. 감독님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받아 여러분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도로의 요철 부분일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려 줄 것입니다.

감독님은 구주가 세상의 빛이심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해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속죄의 혜택을 누리다면, 여러분의 삶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미래는 유망해질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얻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위대한 목적 중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감독님은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과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독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위급할 때 도움을 준 사람과 정서적으로 결속된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적 위기를 헤쳐 나가도록 도와주신 감독님과

여러분은 얼마나 깊은 결속을 맺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감독님이 아주 친절하고 여러분을 인도할 능력이 커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감독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이 될 청년 여러분, 감독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경험은 여러분이 나중에 처지가 바뀌어 책상 반대쪽에 앉게 되었을 때를 대비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 젊은 청년과 나눈 이야기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독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듣고 나면 저를 미워하실 거예요. 저를 다시 보지 못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신다면, 저는 죽어 버릴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네 신뢰를 저버리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그 이야기를 무덤까지 가져갈게.”

그는 몇 가지 가벼운 일들에 대해 말하며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네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겠구나.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자,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 가다가

진심으로 상의하고 싶은 부분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고백하며 변화하고 싶어하는 것을 훌륭하게 생각한다고 계속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언제라도 달아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지만, 이야기해야 할 것들을 함께 다 이야기했습니다.

중대한 일이었을까요? 그에겐 그랬습니다. 하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는 주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자비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함께 노력했고, 그의 회개는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해졌습니다. 지금도 그는 여전히 안부 전화를 하며, 행복한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가 모두 속죄에 의지한다는 것을 그 청년이 깨닫도록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특권이었습니다. 저도 그와 함께 참으로 그의 생명을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에 제 목소리를 더합니다. ■



청년 시절, 내가
외설물로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외설물 중독이 소녀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열여섯 살이 되었을 때,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우연히 외설물 동영상을 접하게 되었는데, 혼자 있었고 궁금하기도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보고 말았다. 그 후 매일 뭔가 새로운 것을 봐야 한다고 느꼈다. 외설물에 중독된 것이다.

외설물을 보고 나면 마음이 언짢았다.

중독에서 해방되며: 나의 외설물 극복 과정

익명

나는 그것이 나쁜 줄은 알았지만, 변화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행복하지 않았고, 더럽다고 느꼈으며, 사탄의 유혹하는 오물로 내가 물들여졌다고 느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욕구 충족을 위해 외설물을 찾아보았다. 중독이 심해질수록 더욱더 나쁜 일들을 하게 되었다. 나는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다. 오빠, 어머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끔찍한 것은 주님과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영화 한 편 더 본다고 더 다치지 않을 것이며, 더러운 이야기를 하나 더 읽는다고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나 자신을 설득했다.

여전히 교회와 상호 향상 모임, 세미나리에 갔지만, 올바른 태도를 보이지 못했고 영이 함께하지 않았다. 나는 분노했고, 공과에서 아무것도 배우질 못했다. 십일조 내는 것과 기도와 경전 읽기도 그만두었다. 죄책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끊을 수가 없었다. 매일 추락하고 있었다.

마침내 외설물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었다. 처음에는 외설물이 없어 박탈감을 느꼈지만, 형편이 여러모로 호전되는 것을 깨달았다. 일상생활이 달라졌다. 매일 외설물을 보지는 않게 되었다. 여전히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좀 더 잘 참아낼 수 있게 되었다. 외설물에 중독되고 2년이 지난 후에 마침내 지속해서 힘을 얻고자 기도하기 시작했고 외설물 보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면이 더럽다고 느꼈다. 감독님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만 그렇게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회개 과정을 거치며 시련을 극복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마침내 정말로 감독님을 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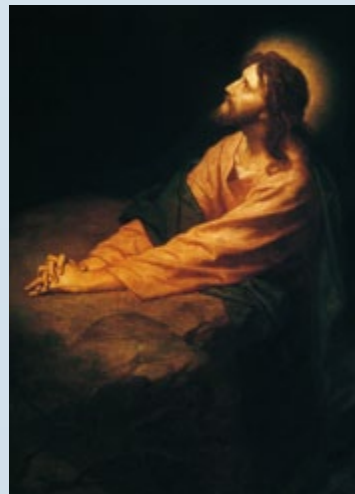
봐야겠다고 느꼈다. 또한 교회에서 축복사의 축복이라는 큰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감독님과 만날 약속을 했다.

접견날 밤에 감독실로 가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감독님이 나를 쳐다보며 내 경우는 희망이 없다고 할까 봐 두려웠다. 스스로 구덩이를 너무 깊이 파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것이 아닐까 두려웠다. 감독님이 나를 다시는 같은 눈으로 보지 않을까 두려웠다. 그러나 감독님께 내 모든 이야기를 하는 동안 감독님은 사랑을 담은 미소를 띠 채 귀담아 들어 주셨다. 감독님은 정말로 나에게 대해 염려하셨다. 감독님과 이야기를 하고 회개 과정을 거친 후, 감독님은 마침내 내게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외설물에 중독된 날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감독실을 나서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고 깨끗함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짙어졌던 무거운 짐을 벗어 놓은 홀가분한 느낌이었다. 축복사의 축복을 받고,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며, 다시 영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기뻐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느꼈다. 사람들은 심지어 내가 너무나 달라 보이고 색다른 빛이 난다고 말했다. 나는 언제나 더 행복했고 모든 것에 대해 더 나은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변할 수 있으며 중독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감독님께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우리가 회개하여 다시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깨끗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를 한다면 여러분은 속죄를 통해 용서받고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회개는 잘못된 행위를 단순히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용서를 구하기 위해 죄에서 떠나 주님께 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죄를 지었다면 속히 회개할수록 의로운 길로 돌아오는 노력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고, 용서와 함께 찾아오는 화평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회개하기 위해 노력할 때 부모님께 도움과 조언을 구하십시오. 성적인 범법이나 외설물과 같은 심각한 죄는 감독님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감독님에게 솔직하게 다 털어 놓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회개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28~29쪽.

단순한 조수를 넘어서

여러분은 가정 복음 교육을 하러 갈 때 자신은 그저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저는 어떻게 가정 복음 교사는 물론이고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좋아해요.”

두 슈퍼영웅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어떤 환경에 있던 간에, 여러분은 방문하는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설이나 영화에서 수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저 멀리 크고 두려운 문제가 먹구름처럼 드리워 있습니다. 재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예상을 뒤엎고 위기에서 구해 줄 영웅이 나타납니다.

더 큰 부름은 없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가정 복음 교사의 부름보다 더 중요한 부름은 없다.”¹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영웅에게는 흔히 조수가 따라다닙니다. 이 배역은 대개 몇 가지 간단한 재주가 있지만, 주로 악당이 들끓기 시작할 때 영웅에게 무기를 건네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가정 복음 교사는 영적 메시지를 나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합니다. 가정 복음 교사는 각 가족에게 도움을 구할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여러분은 가정 복음 교육 후임 동반자로, 자신을 그저 그런 조수쯤으로 생각하려는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어쨌든 성인 동반자가 여러분보다 더 오래 다녔고 경험도 많습니다. 따라서 의무를 완수할 책임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가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란 매달 그저 의무적인 방문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 친구란 염려해 줍니다. 친구란 사랑을 보입니다. 친구란 귀담아들어 줍니다. 친구란 가까이 돕고자 노력합니다.”²

위대한 우정은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복음 교육에서 슈퍼영웅(선임 동반자)과 조수(여러분) 역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진정으로 세상을 바꿀

친구로 봉사하며

미국 남부 유타에 사는 16세 소년인 손 시는 가정 복음 교사는 물론, 친구가



되는 방법을 압니다. 손은 로데오 경주, 레슬링, 가축 돌보기, 자동차 수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손은 또한 가정 복음 교육 대상자들과 우정을 쌓는 것을 좋아합니다.

손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손의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는 와드 감독님이십니다. 그들이 방문하는 한 가정은 부인은 교회 회원이지만 남편은 비회원인 곳입니다. 손은 첫 방문 때 남편인 플로이드와 친해졌습니다. 플로이드가 자신의 지프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자 손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손은 “우리는 즉시 마음이 통했다.”고 말합니다.

손과 감독님이 플로이드와 그의 부인을 방문하던 해에, 손은 때때로 플로이드가 엔진 수리하는 것을 도우며 우정을 키워 갔습니다.

손이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는 봉사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니라”(모사이야서 2:17).

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봉사할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

우리는 모두 영적인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또, 고유한 관심사와 취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아무도 같은 방식으로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르기에 공헌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실패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³ 가정 복음 교육은 여러분이 그러한 은사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적 메시지를 나눌 차례가 오면, 방문하기 전에 방문할 사람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여러분은 그 가족에게 이야기할 주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빛을 발하십시오! 아는 것을 나누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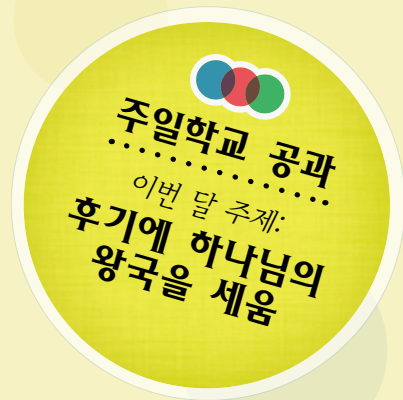
또한 여러분은 방문하는 가족들을 위해 봉사할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 복음 교육 대상 가족 중에 누군가 기타를 배우고 싶어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때때로 여러분은 몇 년 동안 기타를 배워 왔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진입 차도의 눈을 치우거나 나무를 손질해 주는 것에 못지않게 이따금 음악에 관한 약간의 조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가정 복음 교육을 함께하는 여러분의 선임 동반자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가정 복음 교사로서 똑같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보탬이 될 만한 뭔가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

1. 에즈라 테프트 벤슨, “가정 복음 교사에게”, 성도의 빛, 1987년 7월호, 50쪽.
2. 토마스 에스 몬슨, “가정 복음 교육-하나의 성역”, 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47쪽.
3. 헨리 비 아이어링, “아이들이 높은 목표를 세우도록 도와주십시오”, 리야호나, 2012년 11월호, 60쪽.
4. 린다 케이 버튼, “봉사하기 전에 먼저 지켜보십시오”, 리야호나, 2012년 11월호, 78쪽.



대화에 참여하세요



12월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자는 주제에 집중할 것입니다. 가정 복음 교육도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봉사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영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뭔가를 마음속에 떠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린다 케이 버튼 자매님이 하신 권고를 기억하십시오. “봉사하기 전에 먼저 지켜보십시오.”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먼저 지켜본 후 봉사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와드에서, 가족에게 또는 다른 청소년에게 나눌 준비를 하십시오.

거룩한 곳에 서라



1

올해 교회 잡지는 전 세계 청소년 여러분에게 자신이 어떻게 거룩한 곳에 서 있는지를 보여 주는 사진을 보내도록 요청했습니다. 보내온 사진 중 일부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2013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를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보도록 합시다.

1 건전한 활동에, 특히 가족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저는 거룩한 곳에 섭니다.
라래 알(16세),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2

2 세상의 것보다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저는 거룩한 곳에 섭니다.
킵 엠(18세), 필리핀 네그로스 옥시덴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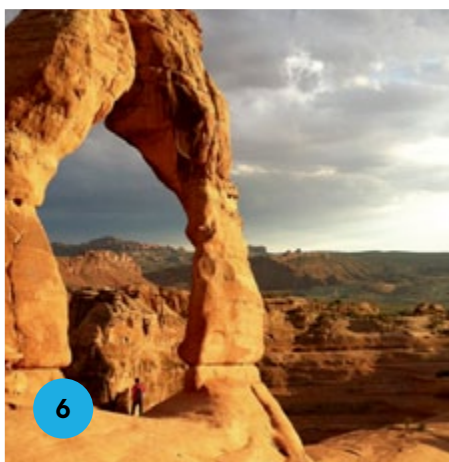
3 제게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봉사를 의미합니다. 저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참으로 강한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키아나 비(15세), 미국 유타



4 저는 제가 침례 받았던 침례탕 옆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새로워지기 때문에 저는 이 침례탕을 거룩한 곳으로 여깁니다.
조 스미스 이(17세), 나이지리아 아콰이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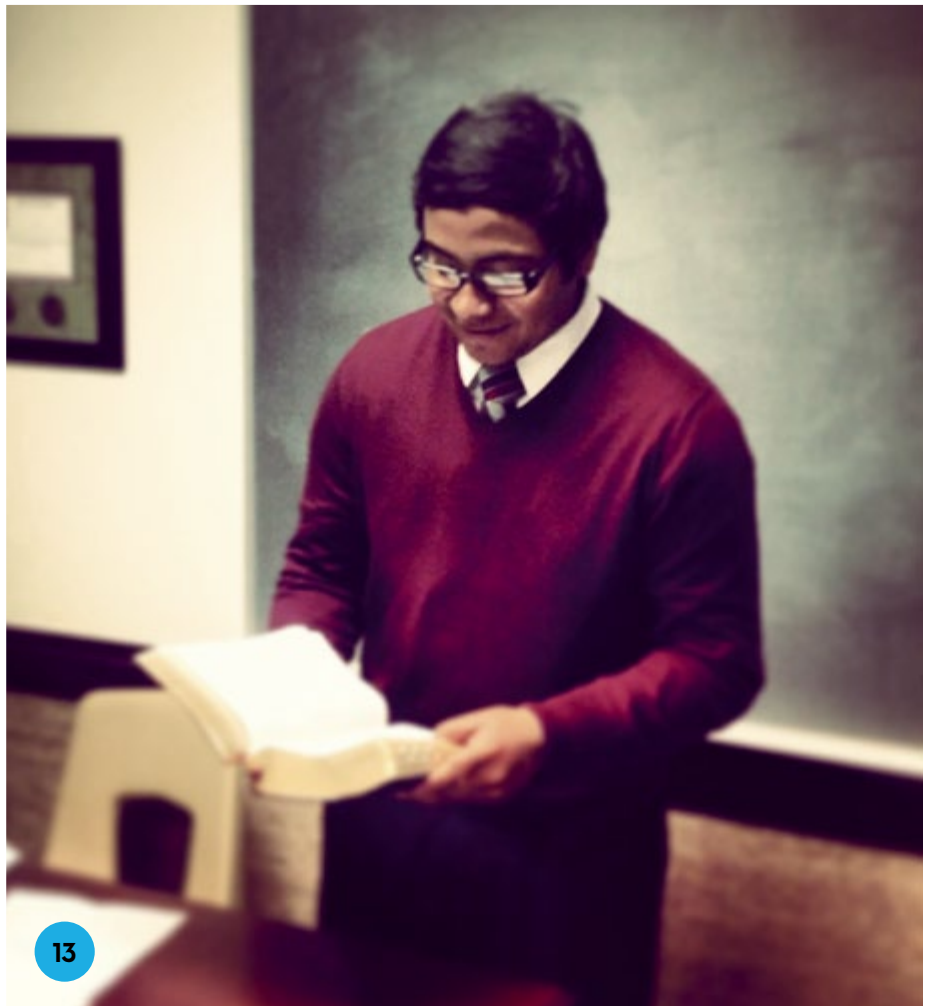
5 산에 올라가서 세속을 벗어날 때면, 산이 거룩하고 평화로운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에머 피(17세), 미국 오리건



6 저는 야외 활동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곳(유타 모압 델리케이트 아치)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놀라운 것들을 보면 영을 느끼기 쉽습니다.
존 티(18세), 미국 유타



7 집에 있을 때 행복과 화평을 느끼기 때문에 제게는 집이 거룩하고 신성한 장소입니다. 모몬경을 읽을 때, 성신을 통해 고요한 평화를 느낍니다.
멜리사 디(13세), 코소보



다른 거룩한 곳

다 른 청소년들도 다음과 같이 “…… 함으로써 저는 거룩한 곳에 섭니다.”라는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 “친구들에게 복음을 나눔으로써” **존 비(17세), 브라질 세아라**
-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면서 복음을 나눌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또 곧 저도 전임 선교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선교사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조셉 에이치(18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농구 경기장에서 팀 동료들을 도우며 우리 팀은 물론 다른 팀 선수들에게도 좋은 스포츠맨 정신을 보임으로써” **에밀리 시(12세), 미국 유타**
- “고등학교 합창단에서 공연하며 우리의 재능을 나눔으로써” **태너 엠(17세); 케일린 에스(15세); 렉시 제이(17세); 스펜서 엠(17세), 미국 아이다호**
- “같은 표준과 가치를 따르는 다른 청년들과 우리가 옳은 일을 하도록 원리를 가르쳐 줄 지도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 청년 야영에 참여함으로써” **노르마 브이(17세), 에콰도르 과야스**
- “온종일 영을 동반할 수 있게 해 주는 세미나리에 참석함으로써!” **사바나 에프(17세), 미국 애리조나**
- “학교 응원단 훈련을 할 때 제가 무엇을 지키는지 팀 동료에게 알임으로써” **마케나 에프(15세), 미국 캘리포니아**
- “성찬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함으로써” **엑슬 에스(14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계속해 나가면 언젠가 성전에서 결혼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기에 자신을 깨끗이 지키며 옳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휘트니 에이치(15세), 미국 유타**
- “주님과 맺은 성약을 지킴으로써” **마크 엠(17세), 미국 오레곤**

이제 올해 상호 향상 모임 주제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곳에 계속 머물 수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일지에 적어 보십시오.

8 청년의 새로운 시작이 담긴 사진입니다. 제게는 교회 건물이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청년 가치와 복음 원리를 배웁니다. 교회에서 저는 또한 같은 신앙을 따르는 청년들과 우정을 나눕니다.
루이즈 에스(12세), 브라질 리우그란데두술

9 사람들을 돕고 좋은 친구들과 즐겁게 지냄으로써 저는 거룩한 곳에 섭니다.
제임스 알(17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10 복음대로 생활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저는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고 성신과 더욱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조나단 엔(17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11 성찬식에서 피아노 반주를 할 때 저는 거룩한 곳에서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멜로디와 가사가 제 신앙과 간증을 강하게 해 줍니다.
첼시아 에이(13세), 인도네시아 반텐

12 성찬식에서 지휘하면서 회중이 부르는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감동을 받을 때, 저는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오바니 더블유(15세), 인도네시아 반텐

13 일요일에 정원회에서 가르칠 때 저는 거룩한 곳에 섭니다. 저는 선교 사업을 사랑합니다.
라몽 엠(16세), 미국 캘리포니아





좋아하는 성탄절 노래

시 지 린스트롬

그 성탄절 파티는 빨강과 초록색 포장지로 덮은 탁자, 음식이 담긴 종이 접시,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 와드 회원들이 즐겁게 나누는 담소로 가득한, 그냥 전형적인 와드 성탄절 파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누군가가 장내를 진정시킨 후 음식 축복을 했고, 모두가 먹기 시작했다. 프로그램이 막 시작되려 했다.

그곳은 우리 와드가 아니었다. 친구의 와드 파티에 초대되어 갔던 터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우리는 일찍 나오고 싶었지만, 친구 어머니가 그 프로그램을 보고 가라고 설득하셨다.

그 프로그램의 첫 순서는 초등학교 어린이 발표였다. 아이들은 둥근 금색 반짝이 머리장식을 머리에 쓰고 무대로 걸어 올라갔다. 아이들은 노래를 부른 후에 깔깔대며 무대를 내려왔다. 아이들이 지나간 자리에 금색 반짝이들이 어지럽게 떨어져 있었다.

그다음 순서로 두 사람이 즐거운 노래들을 피아노로 연주했다. 첫 연주자는 “주 믿는 신도여”(찬송가, 127장)를 한 음도 놓치지 않고 연주했다. 그다음 연주자는 어린 소년이었는데 피아노 앞에 앉아 애절한 눈빛을 하고 어깨 너머로 엄마 쪽을 쳐다보았다. 엄마는 조용히

박자를 잡아 나갔다. 소년은 한숨을 지으며, 피아노로 몸을 돌이켜, “Up on the Housetop(업 온 더 하우스탑)”을 최선을 다해 연주했다.

다음 순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 “C-h-r-i-s-t-m-a-s.(성탄절)”였다.

나는 어깨가 구부정하고 한 손이 몸 가까이 달라붙은 한 자매가 어색한 걸음걸이로 무대에 올라 피아노 곁에 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한쪽 엉덩이가 다른 쪽보다 처진 자세로 서서 입꼬리 한 쪽이 처지게 웃음 지었다. 나는 그때 그녀의 노래가 별로일 거라고 잘못된 예상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내가 어렸을 때, 성탄절은 하나의 의미였네” 그녀가 노래를 불렀다. 한 어린이가 어떻게 성탄절이란 단어의 철자를 배우고 성탄절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내용의 노래였다.

그녀의 입은 한 쪽으로 처져 분명한 소리를 내는 것이 어려웠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을 둘러보며 와드 회원들의 얼굴을 살폈다. 아무도 개의치 않는 듯이 보였다. 회원들은 흐뭇한 표정으로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노래를 이어가며 얼굴을 들어 눈을

나는 그녀의 노래가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 깨닫기 전에는 그녀의 노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천장 어느 부분인가에 고정했다. 잠시 후 나도 올라다보았지만, 천장 벽돌만 보였을 뿐이었다. 다시 그녀를 힐끗 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것이 보였다.

그녀가 노래를 마치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녀의 뺨이 붉어졌다. 그녀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와드 회원들은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이나 어깨를 두드리며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보였다. 나와 가까운 자리에 앉은 자매가 그녀에게 노래를 정말 훌륭하게 잘했다고 하자 그녀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감사해요. 그분이 좋아하셨다면 좋겠어요.”

그분? 누구를 위해 노래를 불렀던 거야? 나는 마음속으로 자문해 보다가 그 대답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 방에 있던 누구를 위해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청중의 인정을 받고자 노래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구주를 찬양하고자 그분께 노래를 불러 드린 것이었다.

그 파티 후 많은 성탄절이 지나갔다. 나는 지금껏 많은 사람이 그 “C-h-r-i-s-t-m-a-s” 노래를 잘 훈련된 목소리로 부르는 것을 들어 왔다. 하지만 그 성탄절에 들었던, 색다르면서도 진심을 다했던 그 노래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

글쓴이는 미국 워싱턴에 산다.

우리 형은 선교사



케빈 브이, 멕시코, 11살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고 싶어라” (“나 선교사 되고 싶어라”, 어린이 노래책, 91쪽)

부 모님과 형, 나까지 우리 가족은 형이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준비했다. 형이랑 선교사가 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형을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며 혼자 있어도 즐거울 거라고 농담을 했다.

마침내 형이 선교사 추천서를 보내는 날이 다가왔다. 형은 학교에서 잘하려고 노력했고 우리는 형의 선교 사업을 위해 돈을 저축하고자 모두 열심히 일했다.

어느 날 스테이크 회장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부름장이 도착했다고 말씀하셨다. 형은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부름장을 개봉하기로 했다. 형은 멕시코시티 동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얼마 후 우리 가족은 형을 공항에서 배웅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그런데 겨우 2시간 후에, 형과 함께 쓰던 방으로 돌아왔을 때, 불현듯 오랫동안 형을 보지 못할 거라는 걸 실감하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눈물이 솟았고, 영영 울었다. 부모님은 나를 안아 주고 위로해 주셨다.

우리는 큰 기쁨과 큰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그날 이후, 나는 형이 봉사하는 동안 형을 잘 돌봐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다.

형은 내게 선교 사업을 준비하라고 가르쳤다. 나는 신권을 받기에 합당해야 하며, 세미나리에 참석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에 나오는 목표들을 달성해야 한다. 형은 내게 일하여 돈을 모으고, 경전을 읽고, 지도자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쳤다.

나도 선교사로 봉사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며 참된 것을 알 수 있도록 돕고 싶다. ■

특별한 증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입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신성한 시간입니다.
행복의 계획은 가족을 위한 계획입니다.
현재와 영원에 이르기까지 가장 기분이 되는 조직은 가족입니다.
회원 여러분, 가족에게 헌신하십시오.
저는 이 교회의 가족들이 부모와 자녀로서 축복받기를 기도합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어린이가 그들을 이끌리니",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9쪽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을 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팔로 감싸고 축복하시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물론경에 나오는 니파이인 어린이들에게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그들의 어린아이를 데려오라 명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그들의 어린아이를 데려와 그를 둘러 땅에 내려놓는지라, 예수께서는 그 한가운데 서셨고 ……

또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시더라.”(제3니파이 17:11~12, 21)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상에 사실 것임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자 통치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그때는 화평과 행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파이 어린이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며, 옳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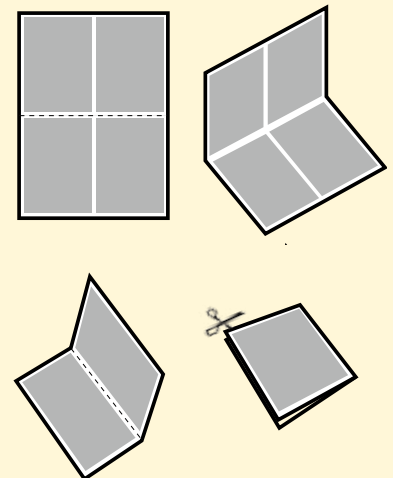
가족과 대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상에 머무실 때 지구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가족과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니파이후서 21장 6~9절을 읽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대하고, 동물들이 어떻게 행동하며, 세상이 얼마나 안전해질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기를 바라는지 가족들과 차례대로 말해 보세요.



노래와 성구

-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린이 노래책, 46~47쪽)
- 마태복음 1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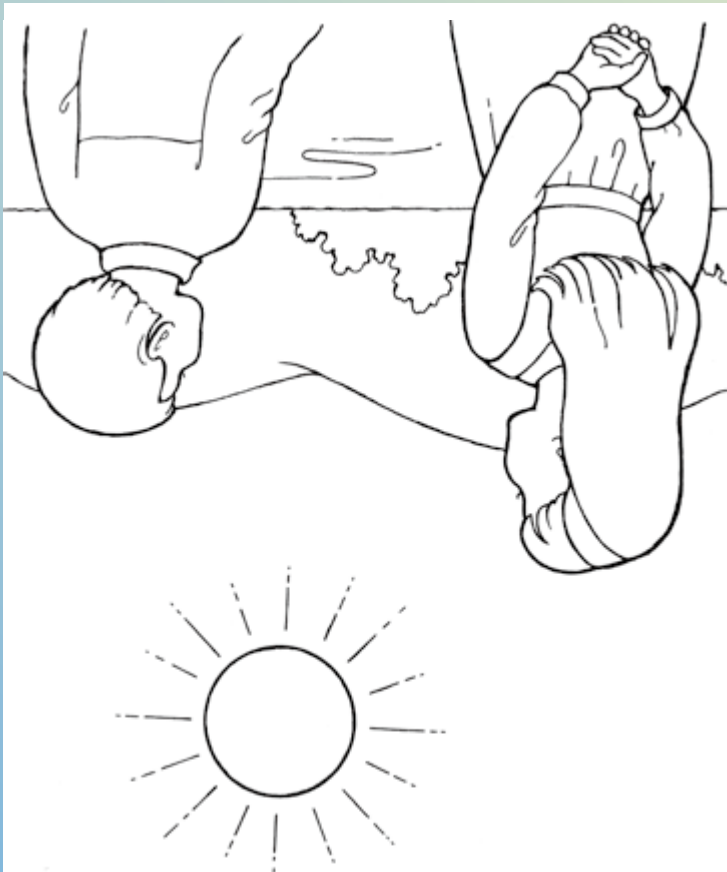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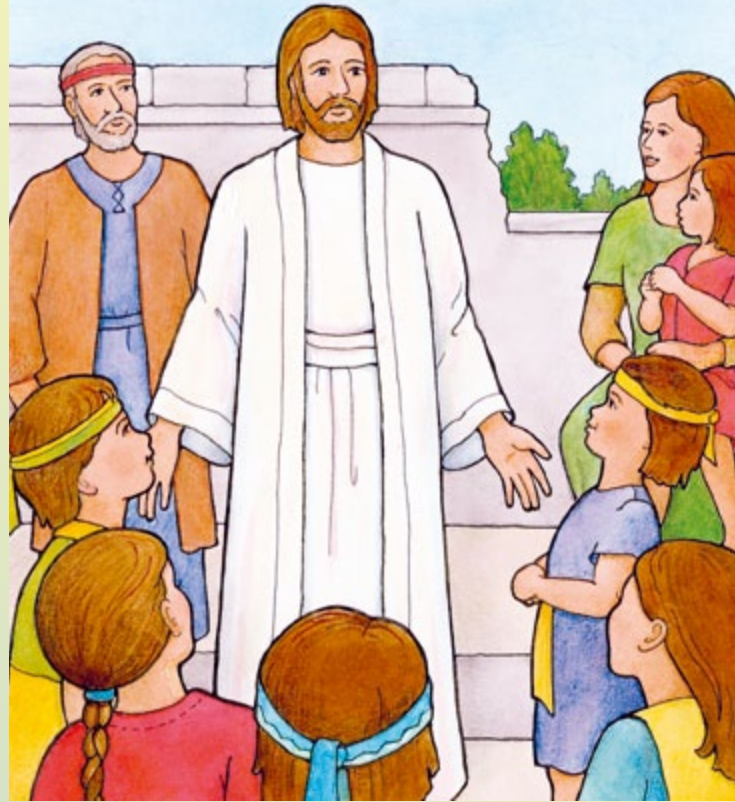


부르시리라는 것을 우리 확실히 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멀라 그린우드 데인



어른이랑 같이 공놀이



공놀이 할 때 가끔씩 별을 보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 노래할까?



우리 우리를 주님은 그의 무릎 가로



기쁨을 품어
한 곡이 부를까



기쁨이 가득

우리들 이야기

저는 어린이난에 실린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기사를 좋아해요. 그분들의 간증을 읽을 때 제 간증도 더 강해져요. 제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교회 표준을 지키는 데 리아호나가 큰 힘이 됩니다. 리아호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어요.

카밀라 케이(11세), 서말레이시아



초등학교에서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에 간 적이 있어요. 성전 정원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우리는 성전에서 맺는 성약을 통해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아름다운 그림들이 걸린 대기실에서 성전 회장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아주 따뜻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었는데, 엄마는 그 느낌이 제가 배운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성신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이라고 알려 주셨어요. 저는 성전이 주님의 집이라는 간증이 생겼어요.

르네토 비(8세), 브라질



침례 받은 르네토와 함께한 가족



멕시코에 사는 마우리치오 에이치(7세)는 언젠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침례를 받고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마우리치오는 남동생 다니엘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 주려 합니다.



홍콩에 사는 다니엘(3세)은 가족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다니엘은 마음씨도 착하고 잘 웃으며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니엘은 교회와 집에서 언제나 자진해서 기도합니다. 성찬식 전에 아버지 곁에 서서 와드 회원들을 즐겁게 맞이합니다. 교회 모임이 끝난 후 찬송가를 건너서 예배당을 깨끗이 정돈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어느 날 다니엘은 교회에 가던 길에 만난 한 어린 소년에게 같이 교회에 가자고 권유하는 선한 모범을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아일린 시(8세), 과테말라

프랑스령 기아나의 카옌 지부의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성찬 발표를 좋아합니다. 이 어린이들은 기쁘게 자신이 맡은 부분을 읽었고 노래도 매우 잘 불렀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초등학교를 사랑합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는 “난 하나님의 자녀”(찬송가, 187장)입니다.



티마 비(6세), 우크라이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마태복음 16:27)

케이티는 상자를 뒤져서 구겨진 포장지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케이티는 물건들을 상자 안에 다시 다 집어넣고 엄마께 갔습니다.

케이티는 피아노 뒤, 소파 아래, 심지어 토마스의 요람 안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엄마께도 말씀을 드려야 했습니다.

“엄마, 아기 예수상이 사라졌어요.”

케이티는 엄마와 함께 거실에 놓인, 예수님 탄생을 주제로 한 한 세트의 조각상을 앞으로 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목자는 있었습니다. 동방박사와

낙타와 당나귀까지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조각상이 텅 빈 말구유 둘레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엄마께서 말씀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아기 예수는 보이지 않아요. 계속 찾아봤는걸요.” 아기 예수님 없는 예수 탄생 조각상 세트는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엄마는 책장으로 가셨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야.” 엄마는 손을 뻗어 책장 꼭대기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케이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기에 있었구나!” 케이티가 말했습니다. “말구유에 놓아둘게요.”

케이티가 조각상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엄마는 책장 위에 도로 올려 두셨습니다. 엄마는 “올해에는 아기

예수님을 말 구유에 두는 일을 성탄절 아침에 할 거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아빠가 프랑스에서 배우신 전통이지.”

“왜요? 다들 이렇게 슬퍼 보이는데도요?”

“정말 그럴까?” 엄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다들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케이티는 조각상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기 예수가 있던 말구유는 비어 있었습니다. 몇몇 조각상은 말구유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케이티가 말했습니다.

“토마스가 태어나기 전에 동생이 태어날

예수님을 기다리며





거라고 했을 때 네가 얼마나 좋아 했는지 기억하니?” 엄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케이티는 담요 위에서 놀고 있는 남동생을 향해 싱긋 웃었습니다. “네, 오래도록 기대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살 수 있게 해 주실 예수님의 탄생을 선지자들은 수천 년이나 기다렸다는 걸 알고 있지?”

케이티는 초등학교 시간에 구주의 탄생에 대해 기록하는 선지자 그림을 본 것이 떠올랐습니다. 케이티는 “아, 그렇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은 구주께서 오셨을 때 그분께서 하실 일에 대해 생각하고 기록으로 남겼지.” 엄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구주께서 태어나시기만을 기다리며 한평생을 보냈어.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 강탄 조각상에 넣기로 한 거란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구주께서 오실 날을 기다렸다는 걸 되새길 수 있도록 말이야.”

예수님을 기다리는 목자들을 바라보며 케이티는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기다리다가는 지쳐 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한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단다.” 엄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뭔데요?”

“가정의 밤에서 재림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생각하니?”

케이티는 잠시 생각을 더듬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말이예요?”

“맞아.”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글쎄, 그건 모른다. 우리는 예수 탄생 조각상의 목자들이 그랬듯이, 또 고대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지.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예수 탄생 조각상에 놓아두는 걸 성탄절에 하고 싶었어.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되새기고 싶었으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구유로 오실까요?” 케이티가 엄마께 여쭙었습니다.

“아니, 그분은 아기로 태어나지는 않으실 거야. 이번에 오실 때는 부활한 몸으로 오실 거야. 예수 탄생 조각상에 있는 텅 빈 구유를 보면서, 우리 역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린다는 걸 기억할 수 있을 거야. 네가 성탄절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지상에 오실 날을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말이지.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잃어버린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야.”

“그럼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거네요.” 케이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럼, 기다리는 동안 설탕 쿠키를 만들면 어때요?” ■



“우리는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이번에는 영광과 권능, 위엄 가운데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임을 선언합니다.”

제프리 알 홀랜드,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함께 일어서며”, 리야호나, 2012년 8월호, 27쪽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곳을 함께 탐방해 볼까요?

엘리스(9세)와 카일 에이치(6세)는 유타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개척자 마을의 눈 덮인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마치 1800년대 중반으로 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그때 개척자들은 솔트레이크밸리에 정착했습니다. 엘리스와 카일과 함께 '여기가 바로 그곳이다' 유적지 공원에 깃든 개척자 어린이들의 삶을 탐방해 봅시다. ■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애니 비어

장난감을 만드는 사람들은 마을의 이발사에게서 받은 머리카락과 수염으로 인형의 머리카락을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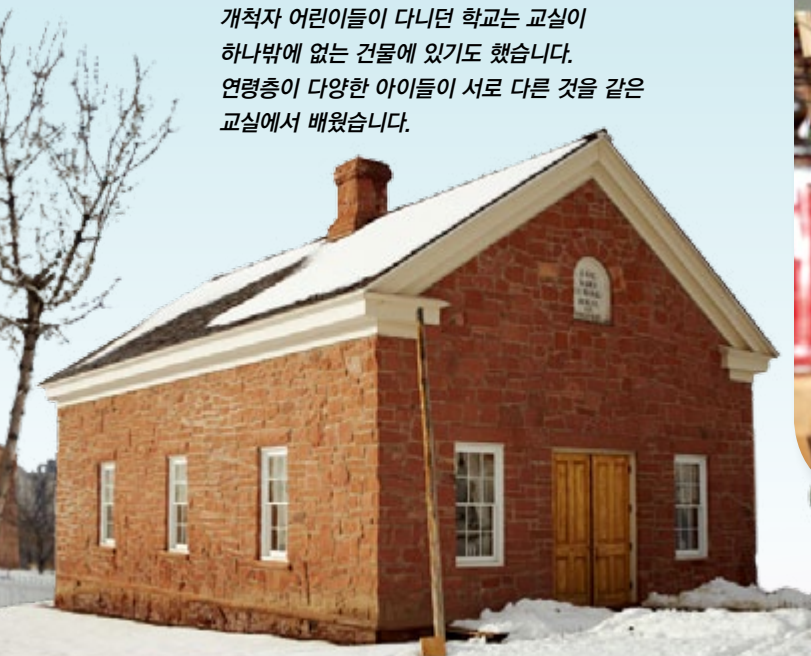


이 조그만 개척자
집에서 열두 명의
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침실이
있는 다락방으로
가기 위해 어린이들은
밖으로 나가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집안일을 마치면, 개척자 어린이들은 장난감을 갖고 놀았습니다.
카일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은 두 줄로 잡아당기는 곰이었습니다.
이 장난감을 통해 개척자 어린이들은 소젖 짜는 법을 배웠습니다.

개척자 어린이들이 다니던 학교는 교실이
하나밖에 없는 건물에 있기도 했습니다.
연령층이 다양한 아이들이 서로 다른 것을 같은
교실에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개척자 무리가
서부에 도착한 것은
1847년이었습니다.
솔트레이크밸리를
처음 봤을 때 브리검
영은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브리검
영의 손자가 설계한
이 기념비는 용감한
개척자들을 기립니다.

맛있는 사탕! 개척자
어린이들도 사탕을
좋아했습니다!



사진: 포디 펠, 포시환 것 제영: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기념비 사진: 폴다 티 웰리영스 © R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샬럿 매이 셰퍼드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아주 기나긴 여행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곧 아기를 낳을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여관은 자리가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가축들을 재우는
마구간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처 풀밭에서는 목자들이 양 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새로 태어난 아기를 보러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마구간을 찾았습니다. 구유에는 강보에 싸인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셨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실 분이셨습니다.



성탄절에 우리 가족과 친구들은 때때로 선물을 줍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태어나도록 보내 주셨습니다. ■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

발 채드윅 베이글리

숨은 그림을 찾아 동그라미 쳐 보세요.



오른쪽 삽화 : 발 채드윅 베이글리

집으로 가는 길

헤더 휘틀 리글리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일을 마친 후 버스를 타고 집에 왔다. 5분도 채 안 되어 나는 버스 창에 머리를 기댔고,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덜컹거리는 버스에서 잠이 들었다.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결혼까지 했기에 새로운 책임들에 적응해 나가려 애쓰고 있던 때였다. 어떤 날은 통근하는 버스에서 내내 즐기기도 했다.

버스에서 즐기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묻는 목소리가 들렸다. 새로 채용된 버스 운전기사가 80킬로미터에 달하는 버스 노선 내내 매번 어디서 돌고 어디로 가야 하며 어디서 세워야 하는지 묻고 있었던 것이다.

평소 1시간 반이면 도착하던 거리를 오늘은 더 오래 걸려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짜증이 났다. 내 머릿속은 운전기사의 능력을 탓하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계속 길을 묻는 운전기사의 목소리 때문에 제대로 잘 수도 없었다.

하지만 곧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잠잠해졌다. 내 자리에서 두 자리 앞에 앉은 한 여성이 자리에 앉은 채 친절히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방향을 가르쳐 주었고, 내리기 전에는 다음 몇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알려 주신다.

정거장까지도 설명해 주었다. 한참 후 집에 도착한 나는 그 여성의 친절함 안내에 비교되는 나의 비판적인 태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사실 나는 그 버스 운전기사와 같은 처지였다. 운전기사가 낯선 길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나 역시 인생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우리 둘 다 낯선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버스 운전기사는 분명 이미 그 길을 가 본 누군가가 자신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참을성 있게 안내해 준 것을 감사히 여겼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똑같은 일을 하신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분은 모범으로 길을 알려 주신다. 우리에게 의문이 있을 때, 사랑으로 그 답을 알려 주신다. 긴 여정 끝에 지치셨을 때에도 그분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셨던가.

그날 이후로 새로운 버스 운전기사들을 몇 명 더 만나게 되었다. 때로 그들은 안내가 필요했고, 우리의 구주께서 보이신 본보기와 그때 그 여성의 사랑이 깃든 모범 덕에 나는 기꺼이 길 안내에 나설 수 있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삽화: 로버트 더버렛

조셉 필딩 스미스

조셉 필딩 스미스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조셉은 산과 일을 하셨던 어머니가 산모들을 방문하실 때 **마차**로 모셔다 드리는 일을 맡아 했습니다. 조셉은 성장해 가면서 경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 교리에 관해 많은 **책**을 썼습니다. 교회 회장으로서는 그는 **유타 프로보 성전**을 헌납했습니다.



베 들레헴 근처 들판에서 갓난 새끼 양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구주의 탄생을 알렸다.

칠십인인 브루스 디 포터 장로는 “양의 번식기에 태어난 그 사내아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썼다. “그 명칭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새끼 양들이 태어나는 그 시기에 함께 태어나신 주님은 훗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 가장 위대한 존재였던 그분은 스스로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하늘의 목자가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16쪽 “주 믿는 신도여” 참조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KOREAN



4
0210792320
10792320
4